

2021 Vol.06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NewsLetter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www.uispc.org

UNIVERSITY INNOVATION



2021 Vol.06

CONTENTS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NewsLetter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www.uispc.org

발행일 | 2021. 7. 31

발행인 | 김석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발행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210호

TEL. 051-510-7905 TFX. 051-510-7941

E-mail. uispc@pusan.ac.kr

인쇄 | 대양프린팅

기고문

04

파트너십 대학혁신

부산대학교 기획처장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_ 김석수

COVID-19, 대학교육 혁신사례

08

가천대학교 창의 NTree캠프

비대면 대형 캠프기획·운영·성과

가천대학교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 계장 _ 이동훈

12

따로 또 같이! 오늘은 플로깅 데이

강남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센터 팀장 _ 이명심

14

동의대학교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동의대학교 지역콜라보센터 사무원 _ 윤태인

16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화

선문대학교 대학교육혁신팀 팀장 _ 김두환

20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마음치료 힐링 프로그램 개발

세명대학교 CHARM케어상담센터 담당 _ 홍희진

성과사례

22

가천대학교 P-학기제(12+4) 성과 사례

가천대학교 대학평가팀 직원 _ 최윤성

24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

광주대학교 대학생활진로·상담센터 센터장 _ 김동원

26

미래사회대비

대표연구소 육성을 통한

학부생 융합연구 프로그램 활성화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팀원 _ 최민정

28

효과적인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L.O.V.E. 지표 구축 및 활용

목포가톨릭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업단장 _ 조발그니

30

교육의 질 관리 및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한 IR정보시스템 구축

삼육대학교 IR센터 연구원 _ 최현

32

교육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명 피어오름 서포터즈’

상명대학교 비교과통합지원센터 담당 _ 백운성

36

“야너두 할 수 있어!” 체험후기를 활용한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홍보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미래지원센터 팀원 _ 최정우

38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SI(Social Innovation)교육

- 민관협력력 사회혁신 프로젝트 -

서울여자대학교

SI(Social Innovation)교육센터 전담교수 _ 윤수진

42

세명대학교 CHARM 역량 기반
비교과프로그램 통합 관리체계 구축
세명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센터장_ 이상준

44

학생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R센터 책임연구원_ 이정선

46

언제 어디서나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학습지도를 위한 AI튜터
연세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책임연구원_ 이인서

48

울산대학교형 혁신교수법
Flipped Learning & iF-PBL
울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_ 허정필

50

교육품질 체제 구축을 위한
교수 역량 통합 관리
제주대학교 대외협력과 연구원_ 김소연

52

창의성 함양과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중심 학사제도-학부생 자유학기제 운영
한동대학교 전략기획팀 팀원_ 김영찬

56

대학평균 2배의 학생 창업기업 배출하는 한성대,
창업가이드북 2.0 발간
한성대학교 창업R&D센터 교수_ 홍성재

60

HOPE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역동적 교수
- 학습 방법 적용(Hi-PBL)
호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본부 팀원_ 김정선

학생사례

64

대학혁신지원사업 융합 특성화 사업을 통해
다가가는 연구자의 꿈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재학생_ 조기원

66

PBL 수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용기
청주대학교 영어영문학전공 학부생 2학년_ 박주연

행사소식

70

즐거운 교육 축제, Disco-Festa
경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구원_ 김나현

72

학생들의 Do-ing 성공의 Gateway 역할을 위한
Do-ing교육센터 신설
동명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관리팀 직원_ 이채영

74

재학생을 위한 세명진로 Festival
세명대학교 취창업지원처 담당_ 전경탁

76

서울 동부권 5개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 개최
한양대학교 교육혁신단 교육혁신팀 직원_ 양혜진



김석수

부산대학교 기획처장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회장

파트너십 대학혁신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교육부는 대학의 특성화전략을 대학혁신정책의 주요 축으로 설정하고, 평가 결과에 의거 목표치를 상회하는 대학정원 감축을 달성하였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원감축으로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오명도 남겼지만, 학령인구감소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명암이 공존하였다.

그 후, 2018년 이루어진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정부주도 정원감축 기조가 완화되었다. 이 시기의 대학혁신정책 특징은 ACE, CK, PRIME 등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이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통합되고, 대학으로 하여금 자율성에 기반하여 중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한 대학혁신전략을 실행,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런 연유로, 정원감축 성과는 1주기 평가때 보다 실효성이 낮았다. 진단 이후, 자율 개선대학에 포함된 일반대학 중에서 자율적 다운사이징을 단행한 대학은 없었던 것 같다. 역량강화대학에서는 약 10% 수준의 정원감원이 이루어졌으나, 고등교육 학령인구 급감시대를 대비할 수준의 유의미한 정원감축 효과는 없었다. 그나마 대학현장에서 1주기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대학자율로 다양한 형태의 대학교육혁신에 힘을 쏟았고 성과를 시현한 것이 큰 소득이다. 실제, 권역별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성과제고와 성과확산 등이 이루어졌다. 개별대학 특유의 차별적 학사구조 및 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 교육방법 등의 혁신은 타 대학으로 확산되어 지금도 협력의 시너지가 창출되고 있다.

최근,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가 수행한 정책연구에서도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창의 융복합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성장을 주도할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역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이 변화하고 있으며, 핵심역량, 교수학습역량 강화 및 교육환경 혁신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업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내외부 성과관리시스템이 잘 가동되면서 대학 교육혁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기반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수준과 성과는 이 순간도 계속 레벨 업 되면서 대학교육현장을 차근차근 변모시키고 있다.

어느새 3년이 흘러가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매서운 강도의 대학교육 수요 급감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 지방

대학의 고사와 몰락을 주제로 한 이슈가 넘쳐나고 있다. 이미 예견된 사실이다. 과거에는 10년 혹은 20년 이후에 일어날 일로 치부되었지만, 지금은 발등의 불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구태여 어려운 계량모형에 횡단면자료나 시계열자료를 투입하여 분석하지 않더라도 거의 완벽히 예측되는 이 확실한 미래 대학의 현실을 애써 외면해 왔다. 미래의 그날이 도달하기 전에 고등교육을 둘러싼 정부의 특단의 정책적 지원 등 외부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자위해 왔는지도 모른다. 고도성장기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에는 대학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이 차고 넘쳤고, 보편적 대학교육에 대한 니즈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대학교육협의회 하계세미나에 참석한 총장들은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든 고등교육환경 악화를 예견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였다. 중앙정부에 “우리 대학들은 13년째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대학 간 미세한 차이로 탈락되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국립대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재정위기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도시에 있는 국립대나 경쟁력 있는 사립대를 보호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대학사회의 분위기를 전달하였다. 이처럼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작금의 대학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고 정부의 획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대학과 국가를 살릴 수 있다는 제언이 지배적이었다. 대학들의 위기감이 최고조로 치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월,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 3주기 진단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 왔던 고등교육환경 악화의 서막도 동시에 열렸다. 대표적으로, 올해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이 받아든 입시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또한 미충원의 쓰나미는 국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밀려 들었다. 비수도권 지역대학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학교육 수요 부족 현상은 개별대학 특유의 차별적 입학생 모집전략이나 입학생 확보를 위한 프로 모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실제, 대학마다 다양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입시전략 추진에 가뜰이나 부족한 대학재정을 쏟아부어 보지만 입학생 부족이라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모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 입학자원 부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교협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가상승률 만큼도 반영되지 않는 등록금 동결 상황 속에서 대학의 교육비 지출 규모 증가는 대학교육 현장을 더욱 옥죄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비롯된 비대면 교육으로의 일대 전환은 대학교육의 루틴과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전으로 초보적 수준의 비대면 강의가 1990년대 초에 이미 대학사회에 등장했지만, 이후 최근까지 일부 사이버대학을 제외하고는 결코 비대면 강의가 대면 강의를 대체하지는 못하였다. 산업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저 너머를 내달리고 있는데, 대학교육의 혁신은 더디기만 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일순간 대학교육과 교육현장을 뒤흔들고 있다. 대학의 현재와 미래는 레드오션으로 치달고 있다.

이와 같은 뉴노멀 시대, 학령인구 절벽시대에 즈음하여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더욱 정교하고 장기 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중앙정부는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적정규모화 정책의 체계적인 밑그림을 완성하고 디자인된

블루프린트대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자율혁신대학 등의 지정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적정규모화를 위해 모든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지향적인 총정원 조정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가 적정규모화의 잠재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학생충원 등 교육여건이 좋은 수도권대학이 예외가 되어서도 곤란하다. 수도권대학을 예외로 하면 상대적으로 고등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 문제가 더욱 심화된다. 우량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제적 적정규모화를 통하여 지역혁신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지역대학을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 학령인구가 부족한 지역대학의 적정규모화는 당연한 과업이다. 그러나 지역대학이 여전히 해당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대학 육성 정책은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학정책 등 범부처가 함께 고수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비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수도권대학과 지역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동일한 잣대로 평가된 결과에 따른 적정규모화라면 국가균형발전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총정원 감축정책의 실행에 대한 대학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유연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 예로써, 교육부가 고려하는 개별대학의 정원감축 및 증원에 대한 탄력성을 보장해주는 입학정원유보제와 같은 유연한 정책은 시의적절성이 높다. 물론 정책적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테일은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자발적인 입학정원유보제를 선택하여 추진하는 대학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정원감축에 대해 보수적인 개별 대학의 저항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입학정원유보제와 같은 정책적 유연성이 고등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많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들은 중앙정부의 대학정원 증원과 감원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이미 많은 학습과정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개별 대학의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재원확보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방법은 등록금자율화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일반재정지원금의 획기적 확충이 될 수도 있다. 등록금자율화 정책은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철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쉽지 않은 부분이란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동결 정책과 정원감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학에게는 가혹한 일이 될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등록금 인상이라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대학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적인 개별 대학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다. 이 같은 고등교육분야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OECD 평균수준인 GDP 1% 수준을 상회하는 고등교육예산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과거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제안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검토와 추진 중인 국립대학법 제정 등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대학 정원감축 정책을 개별대학이 수용할 수 있도록 넋지가 필요한 것이다. 설사,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로 인하여 정원감축 정책을 개별 대학이 수용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교육비 지출에 기인하는 대학의 세출 증가와 등록금 수입 감소 등에서 비롯되는 세입 감소라는 대학예산의 불균형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로 인한 고등교육 질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 될 수 있다.

대학도 손을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개별 대학의 가용한 물적자원과 인적자원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차별적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대학 내부의 자원이 부족하다면 타 대학의 자원을 공유

내지 활용하는 차계생단(借鷄生蛋) 전략도 필요하다.

먼저, 개별 대학은 다운-사이징이라는 시대적 필요를 공감해야 하고, 정부의 선제적 총정원 감축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다운-스코핑도 동시에 추진하여 정원감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차별성 없이 개설된 학문단위를 이 위기와 기회의 순간에 전략적으로 축소시키고 개편해야 한다. 총정원을 줄이는데 기존의 학문단위(학과)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경제 불황기에 기업의 버리기식 경영방식과 버티기식 경영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 불황기가 단기이냐 장기이냐에 따라 성과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장기적인 경제 불황도 20여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확실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불황과 비견될 수는 없다. 이처럼 버티기식 경영으로 기존에 펼쳐 둔 수많은 학문단위(학과)를 모든 대학이 유지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운-스코핑의 방향은 모두가 알고 있다. 대학 간 특화전략, 설립목적별 특화전략 등이 기반이 되면 좋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대학도 특정 학문단위의 강세대학이 뚜렷하게 나올 시기가 되었다.

둘째, 협력기반의 대학경영이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 독립기업으로 참여(기업 간 경쟁) 하기 보다는 전략적 제휴나 장기계약 또는 다양한 종류의 협력에 기반한 집단 간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미래의 레드오션인 고등교육 시장에서 통합대학(대학통합), 협력대학(연합대학, 공유대학) 등의 다양한 전략적 거버넌스에 기반 한 풍부한 상보적 자원이라는 무기를 가진 대학집단이 되어서 한정된 물적·인적·재무적 자원을 보유한 단일대학과 경쟁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최근,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도 자원의 공유, 나아가 공유대학시스템에 기반 한 대학 간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을 통한 지역 대학 간 전략적 제휴가 중요한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거점국립대학 중심으로 공동대학교육혁신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지역 공동의 대학혁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도 지역 개별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한 좋은 전략이다. 단일대학이 아닌 대학집단이 공동의 교육프로그램 혁신과 방법의 혁신, 나아가 교육환경의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거점지역별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생태계가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고 협력기반 경쟁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첨단산업분야의 디지털 혁신인재양성 공유대학사업 역시 지속성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학 간 협력이라면, 디지털혁신 공유대학사업은 지역횡단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대학 간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수평적 협업과 수직적 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협업과 공유의 시대에 경쟁우위 없는 단일대학은 도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제 곧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그리고 지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마찬가지로,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에 자율성에 기반 한 대학의 적정 규모화와 대학혁신을 위한 발전계획을 요구할 것이다. 외부환경이 대학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개별 대학은 자율인 듯 자율 아닌 자율적 대학의 적정규모화와 루틴과 과거로 덮여 있는 가축을 벗겨내는 대학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 중앙정부의 백년지대계 고등교육정책과 개별 대학의 전략적 선택과 실행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정부와 대학은 통제와 관리의 주체와 객체가 아니다. 파트너십으로 대등한 협업의 당사자가 되어 대학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동훈

가천대학교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 계장

가천대학교 창의 NTree캠프 비대면 대형 캠프기획·운영·성과

가천대학교는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한 NTree캠프와 배운 것을 직접 해보는 팀프로젝트 기반의 P(프로젝트) 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창의력, 비판적 사고능력, 협업능력, 의사결정 능력 등 AI나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가천대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다.

창의적 사고능력을 키워주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디스쿨(D-school)의 한국판 모델인 NTree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배우는 법', '상상하는 법'을 익히고 P-학기제를 통해 배운 지식을 활용해 고밀도 몰입형 프로젝트나 현장실습을 진행하면서 협업과 창의 융합, 도전의 가치를 실현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1. NTree 캠프 운영성과

1) '19 NTree 캠프 기획·운영

가천대는 전통적인 '알기' 중심의 교육에서 '해보기·되어보기'의 경험중심 교육으로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 2019년부터 인천 강화에 있는 '가천창의팩토리'에서 1학년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박 2일 동안 '창의캠프' (NTree)를 운영하고 있다.

12년 동안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공부법을 1학년 때 전환시켜 제대로 된 21세기형 공부를 하자는 것이다.

학생들은 창의적·디자인적 사고를 함양하는 디자인 씽킹과 IT/SW 활용법 특강을 먼저 듣고, 팀을 구성해 창의·도전 주제를 정한 뒤 밤새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찾는다. 주입식 교육방식에 익숙한 학생들의 사고를 유연화하여 창의 융합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전체 1학년 2,998명이 대면 NTree 캠프에 참여했다.

2) 코로나19 시대 집합 캠프의 비대면 프로그램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형식의 집단·대형·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해 월~금 주 5일 오후 6시~9시 실시간 온라인으로 캠프를 변경 설계해 2,941명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기초지식 습득(Flipped Learning) : NTree 개요, 비대면 토론, Design Thinking법 등 ▲SW 비대면 실습: 조교 1명이 학생 10명 집중지도, MIT앱인벤터, 아두이노 톱카드 Simulator 활용 ▲조별 토의 및 집중 코칭 : 비대면 조별토의 진행, 학과 교수 집중 코칭(약 20명/인) ▲중간 컨설팅 및 최종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그림 1] 대면·비대면 창의 NTree 캠프 운영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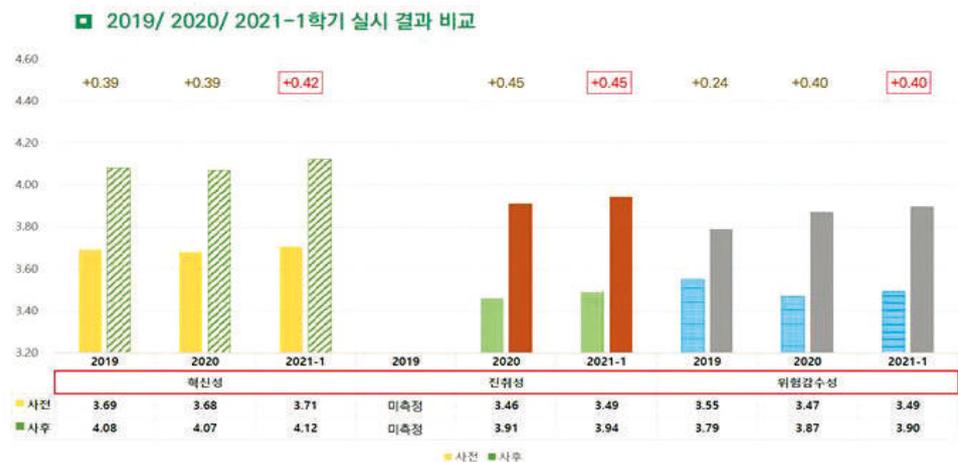
3) 대형·대면 NTree캠프와 비대면 NTree캠프의 효과성 분석

대면과 비대면 NTree캠프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총 542명 참여), 혁신성/진취성/위험감수성/자기효능감/문제해결/협업능력 모두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1학년도의 역량 향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3년간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업방식에 대한 치밀한 기획과 simulation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변경한 것이 학생역량 향상 및 경험중심 혁신교육 목표 달성에 주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2] 대면-비대면 역량향상 비교



[그림 3] 2019~2021년 NTree캠프 역량향상 비교





이명심

강남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센터 팀장

따로 또 같이! 오늘은 플로깅 데이

프로그램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임이나 행사도 중단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 제한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것도, 대규모 봉사활동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욱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봉사 활동 참여자나 수혜자 모두를 주춤하게 한다.

강남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센터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무조건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 봉사활동의 방식에 변화를 주어 학생참여 봉사활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참여의 연대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참여의 기쁨도 느낄 수 있는 플로깅 데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플로깅(Plogging)이란 201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시작된 환경운동으로, 이삭을 줍거나 모은다는 의미의 스웨덴어 플로카 업(plocka upp)과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이다. 즉,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의미하며 플로거(plogger)는 플로깅에 참여하는 사람을 뜻하는 명사이다.

강남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센터에서 시행하는 학생참여 봉사활동 「따로 또 같이! 오늘은 플로깅 데이」는 공원이나 우리 동네 혹은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걸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또한 수거한 쓰레기는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분리 배출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소소한 실천과 재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생각을 통해 넘쳐나는 일회용품,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 등 사회문제, 환경보호, 자원순환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행사내용



■ 행사명 : 오늘은 플로깅 데이

■ 참여 방법

- 1) 학생참여 봉사활동 랜선 플로깅데이 신청서 제출
- 2) 모바일에서 앱(나에게만)을 다운받아 봉사활동 시작
- 3) 시간당 최소 2.5km 이상 걸거나 뛰면서 야외에 버려진 쓰레기 줍기
- 4) 활동 후 모바일 앱 활동 내역 캡처한 사진과 플로깅 활동사진 이메일 제출
- 5) 수거한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분리 배출하기

■ 봉사신청 : '학과, 학번, 성명, VMS아이디'를 작성
이메일로 봉사활동 참여 신청

■ 참여자 혜택 : 본교 졸업인증제 VMS 봉사활동시간 인정(1인, 최대 6시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청 시 지급
비교과 마일리지 최대 15점 부여

주요성과

2020년 12월,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에서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회봉사활동도 전면 취소 혹은 비대면 봉사만 허용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증진과 함께 사회봉사도 가능한 플로깅 데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플로깅 데이를 처음 실시한 2020년 12월1일부터 18일까지 총41명의 학생이 지원하였고 2021년에도 봉사자 신청을 접수받아 5월과 6월에 플로깅 데이를 실시하였다. 물론 중도 포기한 학생도 있었지만 적게는 1시간부터 6시간까지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마쳤다. 플로깅이라는 생소한 봉사활동과 비대면 상황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이 안내되어 홍보가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4.28(5점 척도)로 상당히 높았다. 특히, 장소와 시간 제약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운동도 하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이라는 참석자들의 소감도 이어졌다.

강남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센터에서는 요즘같은 비대면 시기에 봉사라는 것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한 봉사이며, 결국 소소한 실천이 모여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이 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자 한다.

강남대학교 학생들에게 봉사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곳에서 출발하여 내 주변, 친구, 이웃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고 돌아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기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사회공헌센터가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학생참여 봉사활동도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자원봉사, 봉사활동 시간인증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비대면, 온라인 봉사활동 및 개별적인 자원봉사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참여 학생들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하고자 한다.





윤태인

동의대학교
지역콜라보센터 사무원

동의대학교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동의대학교에서는 30년간의 지역 기여 활동을 진행한 역량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하고 있다.

동의대학교 지역콜라보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민의 고립감과 소외감이 커짐에 따라 조금이나마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학과전공기반 재능 나눔 축제'와 '동의온택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20여개의 다양한 재능 나눔 동아리들이 동의동락 프로젝트(뜻을 같이하면, 함께 즐겁다!), 가야동 마음 방역 프로젝트, 행복씨앗 마음 방역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 어르신, 장애인분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생활안전,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별 체험 프로그램으로 6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오고 있다.

특히 동의동락 프로젝트는 구청과 소방서, 지역병원, 복지관이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년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동의동락 프로젝트



가야동 마음방역 프로젝트



행복씨앗 마음방역 프로젝트

동의 온택트 프로그램'이란 코로나19로 발생한 지역민의 교육·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된 교육 영상이다. 본 프로그램은 [2021학년도 동의대학교 온택트 재능 나눔 프로그램 수요조사] 참여 26개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되었다.

영상은 총 5개의 주제(보이스피싱 예방, 소방안전, 감염병 예방, 구강 건강관리, 홈 트레이닝 체조 관련 교육)로 구성, 각 동아리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 및 콘티를 작성하여 부산MBC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다. 교육 영상은 각 수요 기관 배포 및 홈페이지(coexistence.deu.ac.kr) 탑재를 통해 활용되며 현재 지역민 약 4,000여명의 교육·문화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



소방안전



감염병 예방



구강 건강관리



홈트레이닝 체조

위 사례를 통해 학생들은 개인 전공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눔과 소통역량을 강화하여 협력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의대학교는 지속적인 지역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대학의 전문화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지역 공동체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김두환

선문대학교
대학교육혁신팀 팀장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화



1. 원격수업 운영체계 구축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원격 수업을 위한 교수지원이 긴급히 요구되었다. 우리대학은 교무처 중심의 '수업운영TFT'에서 원격수업 운영계획을 신속하게 결정하고(2020.2.),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자재(Zoom, EverLec, 웹캠, 마이크 구매 등)를 조기에 마련하여 전체 교원들을 대상으로 배부하였다. 또한, 원격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교원들과 학생들을 위해 원격수업 운영 및 참여 가이드를 만들어 배부함과 동시에 단계별 맞춤 교육 및 수업운영 매뉴얼을 제공하여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였다.

원격수업 방식 및 운영 가이드

구분	사전녹화 수업	실시간 원격수업
원격수업 진행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verLec 프로그램 사용 콘텐츠 제작 •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교수가 자체 제작하여 LMS(e-강의동)에 탑재 • 50분 단위 강의안 준비 • 준비물: 마이크, 웹카메라, 강의안(파워포인트, 아래한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oo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정된 수업 시간에 실시간 원격수업 진행 • 50분 단위 강의안 준비 • 준비물: 마이크, 웹카메라, 강의안(파워포인트, 아래한글 등)
원격수업 운영 가이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의일로부터 1주일동안 개설 권장 ② 강의동영상(25분)과 퀴즈 5개(25분 분량 과제물) 혹은 강의동영상(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중심수업: 강의동영상(25분 이하기능)+학습자 활동(퀴즈, 과제물 등)+교수 평가(피드백)필수 (단, 학점당 50분 이상 구성) ③ 온라인 콘텐츠 수강 진도율에 따른 자동 출결 확인 후 전자출결시스템에 등록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과목별 Zoom 강의실(회의실) 사전 개설 ② LMS(e-강의동) 교과목 게시판에 강의정보(ID/패스워드, URL 등) 게시 ③ 강의시간표에 따라 실시간 원격수업 진행(50분 수업준수) ④ Zoom 보고서(접속현황) 또는 화상출석 확인 후 전자출결시스템에 등록

※ 콘텐츠 제작시 저작권 준수 안내
 ※ EverLec 프로그램 사용 콘텐츠 제작 및 Zoom 프로그램 사용법 온·오프라인 교육진행
 ※ 전체 교원대상 마이크, 웹캠 및 원격수업 프로그램 라이선스 제공
 ※ 원격수업의 퀴즈(과제물), 교수의 평가자료는 LMS(e-강의동)에 반드시 탑재

수업운영 매뉴얼 및 원격수업 운영 절차



Zoom 매뉴얼



원격수업 운영지원 결과

1단계

매뉴얼 등 온라인 콘텐츠 7종 활용 비대면 교육(967명)



2단계

Zoom 활용 실시간 화상 교육(16회 1,540명)



3단계

대면(오프라인) 교육/세미나 등(9회 365명)



원격수업을 위한 교수자 교육 진행

수업운영 매뉴얼 및 원격수업 운영 절차

The image contains two side-by-side instructional posters for online classes. The left poster, titled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온라인)수업 운영 참여 절차' (Participation Procedure for Remote/Online Class Operation Due to COVID-19), provides information for the 2020-1st semester. It details login methods for PC (LMS, SUNDMOOC) and mobile (EverLec, HALLMS), software requirements for various subjects, and a list of available subjects categorized by type (e.g., synchronous, asynchronous, hybrid). It also includes a user manual section with two parts: 'e-강의용(PC, 모바일) 사용 매뉴얼' and 'zoom 사용자(학생) 매뉴얼'. The right poster, titled '원격(온라인)수업 운영 준비 및 진행 절차' (Preparation and Progress Procedure for Remote/Online Class Operation), outlines the preparation and execution steps for remote classes. It lists software requirements for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classes, provides a detailed '수업진행 순서' (Class Progress Sequence) from login to exit, and includes a '매뉴얼 및 참고사항' (Manual and Reference) section with links to various guides and a '유의사항' (Notes) section. Both posters are branded with th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logo.

원격수업 운영절차 안내(교수 및 학생용)

2.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1학기 원격수업이 운영되는 동안 발생한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원격수업에 적합한 커넥티드 강의실을 구축 하였으며, 외국인유학생 및 온·오프라인 혼합강의 등으로 교내에서 원격수업 수강이 가능한 학습공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학생중심 창의 학습공간'을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고도화 하였다.

커넥티드 강의실(50개실)은 교수자의 강의 모습과 판서를 중심으로 촬영할 수 있는 PTZ카메라와 모니터링 용 모니터를 설치하여 교수자가 본인의 모습을 보며 강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커넥티드 강의실 내 전자칠판(43개실)을 설치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강의환경을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전자칠판은 향후 프로젝터, 스크린, 전자교탁을 대체하여 원격강의 시스템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또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추가적인 인프라 요구에 부응하고자 교수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셀프스튜디오실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셀프스튜디오실은 위치추적카메라, 강의녹화기, 판서형 모니터, AV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보조인력 없이 동영상 매뉴얼을 통해 교수자 스스로 촬영하여 콘텐츠를 생성하고 실시간 원격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호실별로 강의유형에 맞춰 전자칠판, 프롬퓨터, 화이트보드를 다르게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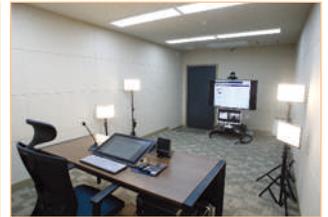
커넥티드 강의실



학생중심 창의 학습공간



셀프스튜디오(CUBE 2)



학생중심 창의 학습공간

3.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신규 콘텐츠 개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 개발된 블렌디드 러닝 강좌는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진행된 블렌디드 러닝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되었다. 블렌디드 러닝 강좌는 수강과 학습활동을 온·오프 라인으로 혼합하여 운영하며, 교과목 특성에 따라 플립형, 조합형, 프로젝트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2020학년도 10개 교과목이 개발되어 2021학년도 1학기 9개 교과목 18개 분반이 운영되었으며, 현재 9개 교과목이 추가로 선정되어 선문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지원하에 전문스튜디오 및 셀프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다.



블렌디드 러닝 관련 연구



블렌디드 러닝 수업 모형

이처럼 선문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내 원격수업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1학년도에도 원격수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요구조사를 통해 우리 대학의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원격수업 콘텐츠에 대한 질 관리를 지속할 것이다.



홍희진

세명대학교
CHARM케어상담센터 담당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마음치료 힐링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 배경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고립과 대인관계의 불편함은 학생들 개개인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무기력감이나 자기 소외감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마음 돌봄과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의 예방·지원을 위해 상담실의 편안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상담', '치료'라는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내고자 노력한 힐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운영 내용

기존에 진행되던 개인 상담의 범주에서 벗어나 단절된 사회적 관계와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을 비롯하여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에서 탈피하여 꽃과 식물이 주는 자연 힐링과 자신과의 대화, 명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시간과 자기회복을 돕기 위한 마음치료를 운영하였다.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진행방법
플라워테라피를 통한 자기와의 화해와 회복	12명	각 프로그램 당 2그룹 구성 1그룹당 3시간씩 진행 (대면 운영)
명상을 통한 마음챙김과 부정적 감정 떠나보내기	11명	

3. 운영 결과

(1) 만족도 결과

플라워테라피를 통해 마음의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며, 마음챙김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은 불안을 다스리고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만족도	응답자 수	%	코로나블루 해소 도움여부	응답자 수	%
매우 만족	20명	87	매우 만족	20명	87
만족	3명	13	만족	3명	13
보통	-	-	보통	-	-
불만족	-	-	불만족	-	-
매우 불만족	-	-	매우 불만족	-	-
전체	23명	100.0	전체	23명	100.0

(2) 학생 소감문 발췌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플라워테라피를 통해 버리게 되고 마음정화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강사님도 친절하고 정말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그램 진행 목적처럼 마음 치료, 힐링한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참여를 고민했었는데 강의 내내 집중하고 스트레스가 풀렸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블루 킁아웃!

4. 총평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대학생활과 우울증,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은 시의적절하였다고 여겨진다. 본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마음 치유·성장의 시간을 갖고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긍정적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가속화되는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과 만족도를 높이고 대인관계, 진로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마음 치료 힐링 프로그램 사진



상담실 환경 개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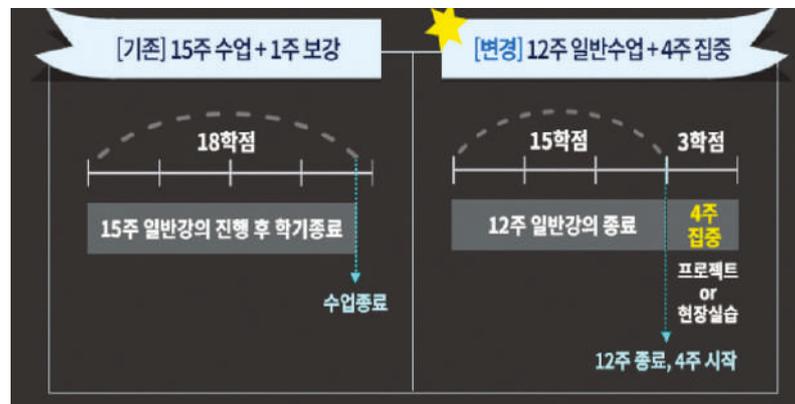
최윤성
가천대학교
대학평가팀 직원

가천대학교 P-학기제(12+4) 성과 사례

1. P-학기제(12+4) 운영 성과

1) P-학기제 운영현황

가천대학교는 2019년 2학기부터 P(프로젝트)-학기제를 도입했다. 3학년 2학기에 시행하는 팀활동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다. P학기 프로젝트는 전공형 프로젝트와 융합형 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되고 학생들은 이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한다. 전체 16주 수업 중 12주는 기존 방식대로 전공이나 교양수업을 하고 4주과정은 배운 지식을 활용해 고밀도 몰입형 프로젝트나 현장실습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협업과 창의 융합, 도전의 가치를 실현할 토대를 마련했다. 2019년 전체 54개 학과 중 21개 학과에서 운영하였으며 2020년 31개 학과, 2021학년도 40개 학과로 확대됐다. 전공필수 3학점으로 운영된다.



강의시간은 어떻게 변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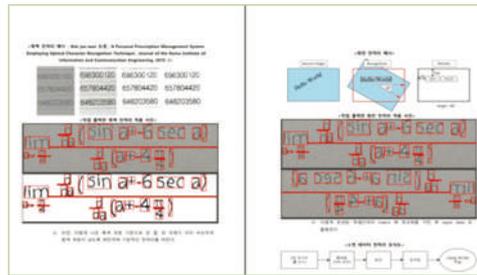
기존 수업과 P-학기제(12+4)의 총 강의시간은 동일!!

15주 → 12주로 변경시 달라지는 강의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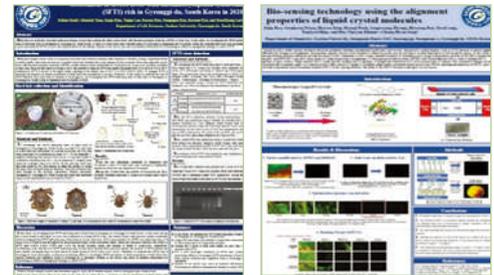
-3학점(이론)과목: 기존 15주 75분 2회 수업에서 12주 100분 2회 수업으로 변경

2) 대표 운영성과

P-학기제는 ▲전공심화 ▲연구개발 ▲사회기여 ▲진로탐색 ▲산학연계 ▲창업연계 등 6개 유형으로 운영되며 사업제안서, 연구개발 포스터, 출판물, 설계품, 시제품 제작을 통한 창업 등의 성과를 냈다. 조경학전공 학생들의「오픈스페이스 기반 조경계획 설계」, 시각디자인전공 학생들의「Artwork 작업물」등이 대표적이다.



▲전공심화
금융수학과_금융분야 문제 발굴 및 솔루션 개발



▲연구개발
바이오나노/화학과_전공관련 연구개발 포스터



▲사회기여
조경학전공_오픈스페이스 기반 조경계획 설계



▲진로탐색
산업디자인전공_취업 맞춤형 포트폴리오



▲산학연계
시각디자인전공_Artwork 작업물



▲창업연계
패션디자인전공_시제품/브랜드 개발을 통한 창업 연계



김동원

광주대학교
대학생활진로·상담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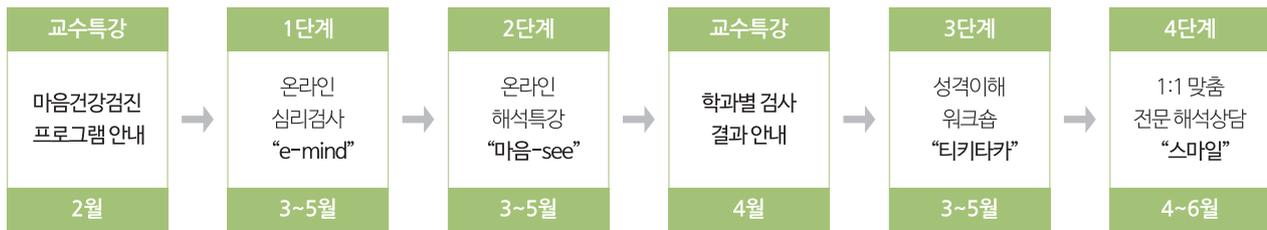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

知彼知己

광주대학교는 COVID-19로 인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을 위해 자기이해와 타인이해를 높여 학생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 실태 점검 및 고위험군 학생을 지원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신입생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은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진단용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마음건강 검진을 실시, 2단계 심리검사 결과를 전문가의 해석상담 동영상을 통해 본인이 스스로 잘 이해하도록 돕고, 3단계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중요한 학과 동기들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학과단위로 상호 성격에 따른 대화방식과 서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함께 배우는 워크숍을 진행, 4단계 자신의 특성이 더 궁금한 학생이 전문가와 1:1로 만나 심층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해석상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력이 큰 1학년 지도교수님을 대상으로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신입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2단계가 끝난 후에 대학생활 진로상담센터에서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과 성격특성에 맞추어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특강을 하였다. 교수님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3단계 워크숍에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생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대학생활진로상담센터에서는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격과 적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게하여 자기 이해도를 높이고, 적합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대학생들의 적응력 향상 및 중도 탈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재학생 3,208명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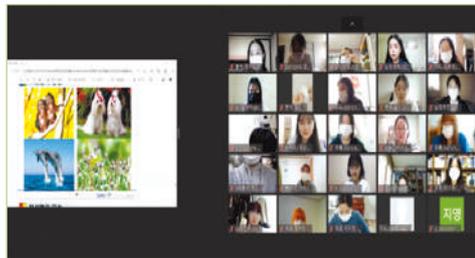
프로그램 참여 소감

- 3단계 성격이해 워크숍 '티키타카'는 39개 학과가 참여하였고, 참가자들 가운데 950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과 매우 만족이 94%로 매우 높았으며, 참가자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 내 기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 나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자신의 성격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 내 성격을 되돌아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 내 성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향을 알게되어 주변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쉬워졌다.
- 검사결과에 놀랐고 저의 특성이나 성격파악을 잘 알 수 있게 됐다.
-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기에 꼭 추천해주고 싶다.
- 내 안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기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
-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기쁘다.

- 4단계 1:1 전문해석상담 “스마일” 참가자인 79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95%로 매우 높았으며 참여소감은 다음과 같다.

- 단체로 특강을 들었을 때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내가 어떤 부분의 능력을 높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지를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내 특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너무 공감이 가서 더 집중이 잘 되고 즐겁고 좋은 시간이 된 것 같다. 나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 낮은 부분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사결과 해석 상담을 했는데 내가 말을 못했던 나의 모습 또 내가 모르고 문제가 되었던 나의 모습을 더 잘 알 수 있었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잡혀서 좋았다.
-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몰랐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이런 검사를 받으면 항상 좋은 부분만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세히 일대일 상담을 하면서 내가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력도 자세히 알게 되었다.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 활동 사진



최민정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팀원

미래사회대비 대표연구소 육성을 통한 학부생 융합연구 프로그램 활성화

대구가톨릭대학교는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라 ‘미래실버케어(고령산업)’ 분야를 미래사회 대비 대표연구 분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사회대비 대표연구소를 신설하고, 미래고령산업융합 연구소를 중심으로 교내 중점 연구소를 운영하여 미래고령산업에 특화된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미래사회대비 대표연구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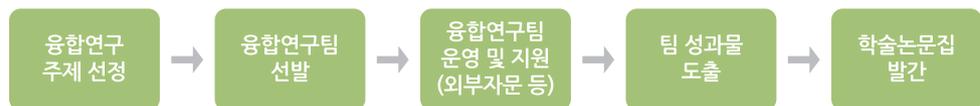
● 미래고령산업융합연구소

지역사회의 환경 및 고령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자서비스의 다학제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5개 참여학과(의공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를 중심으로 고령 전문 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지역사회 고령실태 조사 :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고령자의 정신건강(사회적 고립감, 자아통합감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고령실태 조사 보고서 발행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고령 서비스 융합연구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 현장밀착형 비교과 프로그램 : 유관기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한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융합연구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제고하였다.



- 고령친화 연구진흥 프로그램 : 미래고령 분야 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참여학과 재학생 융합연구팀을 구성하여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활동 및 실험실습을 병행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물은 학술논문집으로 발간해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 4차산업혁명연구소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비전 공자를 중심으로 미래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융합기술교육 실무단기강좌 : 빅데이터 분석 도구,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의 4차산업혁명 최신기술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창의 융합적 미래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융합기술멘토링 프로젝트 : 현장 실무자(멘토)와 미래고령산업 분야 연계 지역산업체의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관련 애로기술을 확인하고, 해소방안을 연구해보는 멘토링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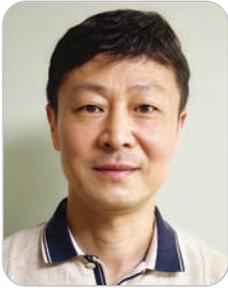
미래사회대비 대표연구소 운영 성과

- 미래사회 대비 대학계간 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유관기관 현장 전문가 교육 및 실험실습 중심의 학생 주도적 융합연구 지원을 통하여 학생 융합연구팀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미래고령산업 융합연구 우수 성과 환류를 위한 미래고령산업융합연구소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총 19팀 수상)하고 있으며, 교내 다양한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2020 DCU 학술경진대회'에서도 미래고령산업 융합연구소 프로그램에 참여한 두 팀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미래고령산업융합연구소
Fusion Research Institute for Future Aging Industry

융합연구팀 결과물





조발그니

목포가톨릭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업단장

효과적인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L.O.V.E. 지표 구축 및 활용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성과 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은 필수이다. 목포가톨릭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는 기존의 단선적 사업성과 관리 체계(PDCA)를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 사업별 '실행' 단계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L.O.V.E. 지표'를 2020년도에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목포가톨릭대학교 교훈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착안한 L.O.V.E.지표는 투입-과정-산출-성과모형(IPOO: Input Process Output Outcome)에 기반하여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의 투입과정, 활동과정, 산출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사업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환류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L.O.V.E.



구체적으로 투입지표는 주최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프로그램 설계 점검과 관련되며 하위 지표는 연계, 의견, 비전, 기대로 구성된다. 과정지표는 진행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운영과정의 점검과 관련되며 하위 지표는 안내, 조직, 혁신, 노력으로 구성된다. 산출 및 성과지표는 참여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프로그램의 단기 및 장기성과를 점검하고 하위 지표는 만족, 참여, 조망, 탁월로 구성된다. L.O.V.E. 지표의 활용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L.O.V.E. 지표

INPUT

주최자 지표/ 설계 점검

● Link(연계)

대학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 Opinion(의견)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전년도 프로그램 시행결과 환류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내용

○ Vision(비전)

4차 산업혁명시대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 제시

○ Expectation(기대)

프로그램에 어떠한 기대를 걸고 있는지, 기대 운영성과는 무엇인지, 성과지표 설정 적합성 점검

PROCESS

진행자 지표/ 운영과정 점검

● Lead(안내)

프로그램 진행자의 강의방식 만족, 부서 업무 담당자의 안내(공지) 만족

○ Organization(조직)

프로그램 진행자의 진행 체계성, 부서 업무 담당자의 프로그램 운영 체계성

○ innoVation(혁신)

운영 프로그램 내용의 혁신성, 새로운 가치와 비전 제공 여부

○ Effort(노력)

프로그램 진행자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부서의 기획 의도와 사업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프로그램 목표달성을 위한 부서 업무 담당자의 노력

OUTPUT/ OUTCOME

참여자 지표/ 장단기 성과 점검

● Like(만족)

학생의 프로그램 만족 여부, 프로그램 홍보 및 재참여 의사

○ Join(참여)

참여자의 참여율과 그 사유, 참여자의 정성적 프로그램 참여 정도

○ View(조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참여자의 미래(진로, 학습, 역량 등) 시야 확장 여부

○ Excellence(탁월)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나아진 부분(단기 성과)과 장기적인 성과



최현
삼육대학교
IR센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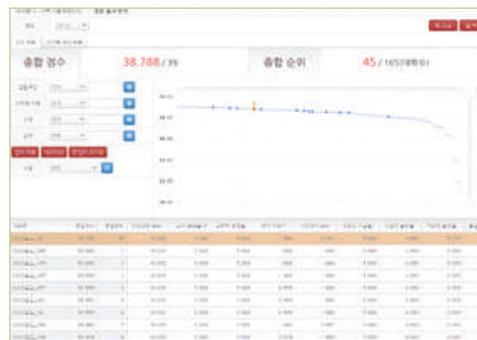
교육의 질 관리 및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한 IR정보시스템 구축

삼육대학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의 교육과 지도관리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IR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1차년도에 구축된 플랫폼 기반 하에 2차년 사업으로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예측분석을 하였다. 3차년 사업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2차 사업으로 구축된 IR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지도와 교육의 질 개선 및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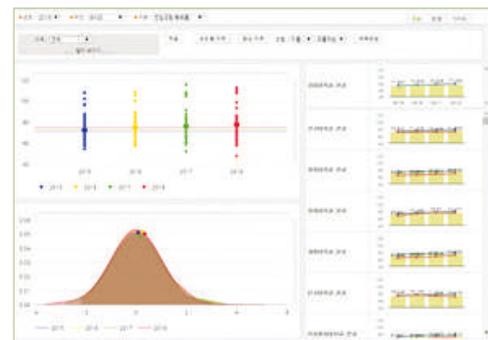
추진 내용 및 주요 실적

1) 1차년도(2019년)

- 삼육대학교 차세대정보시스템(SU-WINGS)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지표간의 상관관계들을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였다.
- 학내 다양한 시스템의 데이터 연계 분석 및 차트를 이용한 직관적인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경영진을 위한 주요 지표 요약이 가능한 대시보드를 구성하였다.
-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여 주제영역별 원시 데이터의 다차원 분석 및 비정형 통계 분석을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 대학의 정량 지표에 대한 종합 점수와 순위 확인 및 비교대학 그룹과 결과 비교 분석 등 대학평가 지표 분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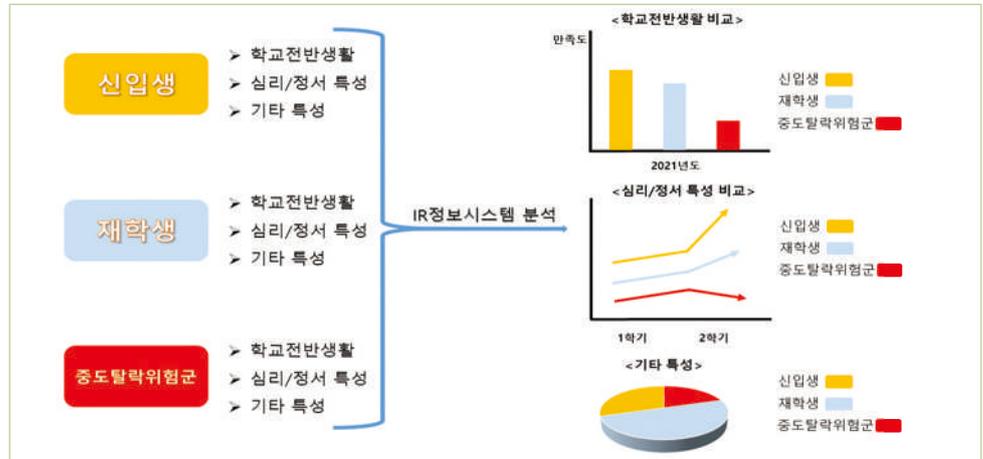
종합결과현황



지표시물레이션

2) 2차년도(2020년)

- 재학생의 입학에서 졸업까지 6대 핵심역량별 학습 관리가 가능하도록 재학생의 정규과정 학업성취도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습변화 현황을 SU-WINGs를 통하여 학생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 연동 분석을 개발하였다.
- 학습법(재학생)과 교수법(교수)에 대해 데이터 기반 교육의 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분석하였다.



- 온라인 설문(만족도 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가능하며, 교원업적 평가 프로세스 개발 및 평가결과에 대한 지표분석 시스템, 직원 인사 시스템 기능 강화 및 데이터 수집과 분석 활용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강의실별 수업 현황 관리, 외국인 학생관리(한국어과정 포함), 중도탈락에 대한 위험군 학생 도출 시스템 등 1차 SU-WINGs 데이터 분석에 대해 추가적으로 구축하였다.
- 실제 운영을 위한 서버 장비를 구축하고 IR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UPS를 보강하였다.

3) 3차년도(2021년)

- 정형화된 데이터 외 비정형 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으로 단계적 고도화를 하고 있다.
- IR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1차 추진 내용으로 중도탈락 위험군 및 취업에 대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IR정보시스템의 성과

- 삼육대학교는 IR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특성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재학 환경을 제시하고, 데이터 지표간 단절된 정보에서 연관분석을 통한 확장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



백운성

상명대학교
비교과통합지원센터 담당

교육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명 피어오름 서포터즈’



‘상명 피어오름 서포터즈’를 소개합니다!



양준석
한일문화콘텐츠학과

선생님! 안녕하세요~!
상명 피어오름 서포터즈 2기 양준석입니다. 친구들이 상명 피어오름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운성
 비교과통합지원센터

상명 피어오름 서포터즈는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니즈'를 반영하여 편성된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으로 상명대학교의 비교과교육과정인 '피어오름' 홍보를 담당합니다.

상명대학교 피어오름 서포터즈는 첫째, 학생들에게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과 교육과정 홍보를 담당합니다.

둘째, 시대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셋째, 코로나19시대라는 환경적 장애극복을 위한 언택트 운영방안을 기획합니다. 활동이 종료 되면 비교과프로그램 마일리지와 장학금도 지급합니다.



여준성
 휴먼지능로봇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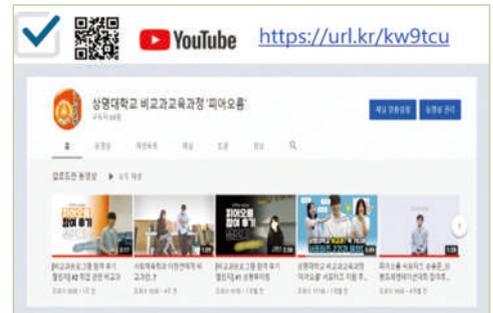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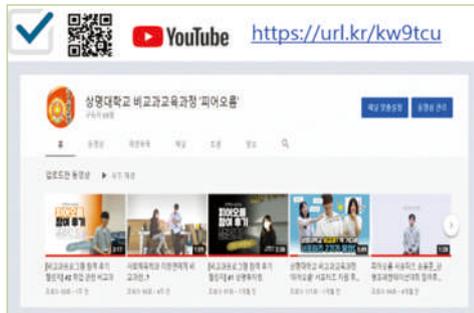
상명 피어오름 서포터즈의 대표성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백운성
 비교과통합지원센터

상명대학교 피어오름 서포터즈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하여 현재 2기가 활동중입니다. 서포터즈는 비교과 교육과정 카드뉴스 제작, 비교과프로그램 체험자 인터뷰, 만족도 조사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그 대표성과로 첫째, 비교과교육과정 홍보를 위한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비교과교육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비교과교육과정의 정의, 신청 방법, 마일리지 등을 소개하고,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의 후기를 인터뷰하는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비교과교육과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어오름 활동을 마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어오름서포터즈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 소감과 활동후기를 통해 프로그램을 환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학기 동안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제시하는 의견은 프로그램을 더욱더 알차고 견고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백운성
비교과통합지원센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준석학생과 준성학생은 서포터즈로서 활동을 잘해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준석학생과 준성학생이 **상명 피어오름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양준석
한일문화콘텐츠학과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비교과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고심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준성
휴먼지능로봇공학과

비교과프로그램은 단순하게 프로그램으로써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의 전공, 교양교육 및 SM-IN역량 함양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백운성
비교과통합지원센터

그렇다면 준석학생과 준성학생이 서포터즈로서 활동한 프로그램 참여후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양준석
한일문화콘텐츠학과

서포터즈는 우리 대학의 비교과프로그램을 학우들에게 단순히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후기', '신청방법 및 혜택'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SNS, 유튜브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힘은 "피어오름 서포터즈 활동이 학생을 위해 학생이 고민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과 활동이 위축된 지금, 더욱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교육브랜드인 '오름교육'의 비교과교육과정 '피어오름'처럼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상명인 모두가 오름의 정상에서 꽃처럼 피어오르는 그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여준성
휴먼지능로봇공학과

비교과교육과정을 의미하는 '피어오름'은 교내에서 진행되는 많은 비교과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이고, 각 프로그램들은 단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역량기반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나 자신이 주체가 되는 일이 아닌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힘을 쏟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다른 친구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보람과 성취감은 어디서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온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피어오름서포터즈를 통해 '피어오름(비교과교육과정)'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백운성
비교과통합지원센터

답변 고맙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제6호를 보신 후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은 누구든지 상명대학교 비교과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2287-7182)



최정우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미래지원센터 팀원

“야 너두 할 수 있어!” 체험후기를 활용한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홍보

게임에 비유하면 비교과프로그램은 서브 퀘스트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메인 퀘스트 외에 추가로 주어지는 임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면 충분히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매뉴얼과 튜토리얼에서 최대한 친절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거 재밌겠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주기 위해 비교과교육 참여학생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다듬어나가는 중이다. 2020년에는 비교과 통합관리 부서에서 2020년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참여후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출품작을 수록한 작품집을 발간하였다.



비교과프로그램 참여후기 작품집 표지

별별 포인트 제도와 참여후기 공모전의 경우 대학회계예산으로 추진하였고, 비교과 참여후기 작품집의 경우에는 대학회계예산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함께 사용해 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품집에 대해서만 다루려 한다.



윤수진

서울여자대학교
SI(Social Innovation)교육센터
전담교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SI(Social Innovation)교육 - 민관학협력 사회혁신 프로젝트 -

서울여자대학교는 중장기 발전계획 SWU2030을 수립하면서 건학이념과 공동체정신, 그리고 바름인성교육과 서비스러닝 등 개교 이래 지금까지 이어온 전통과 강점을 바탕으로 'SI(Social Innovation)'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할 가장 핵심적인 교육 특성화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2019년 SI(Social Innovation)교육센터를 설립하였다.



서울여대 SI교육센터는 SI교육 요소에 기반하여 설계된 교과,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사회혁신 기본 관점과 실천 역량을 갖추도록 SI Mindset 교육 - SI Skillset 교육 - SI Practice 단계로 구성된 'SWU-Social Innovator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단계별 이수 후 사회혁신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제를 실시한다. 또한 사회혁신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현장 기반 전문교육인 Social Entrepreneurship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SI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2020학년도부터 사회혁신의 다양한 주체인 대학, 지자체, 기업, NGO가 협력을 통해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창출하는 '민관학협력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2020학년도에는 서울여대 교양필수교과인 바롬종합설계프로젝트 수업과 연계하여 의정부시, 한국해비타트, 포스코건설이 협력하여 '다함께 다같이 신흥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강과 멘토링을 비롯하여 주민참여활동,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15주간의 수업을 공동으로 기획, 운영함으로써 참여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과 주민이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회혁신을 실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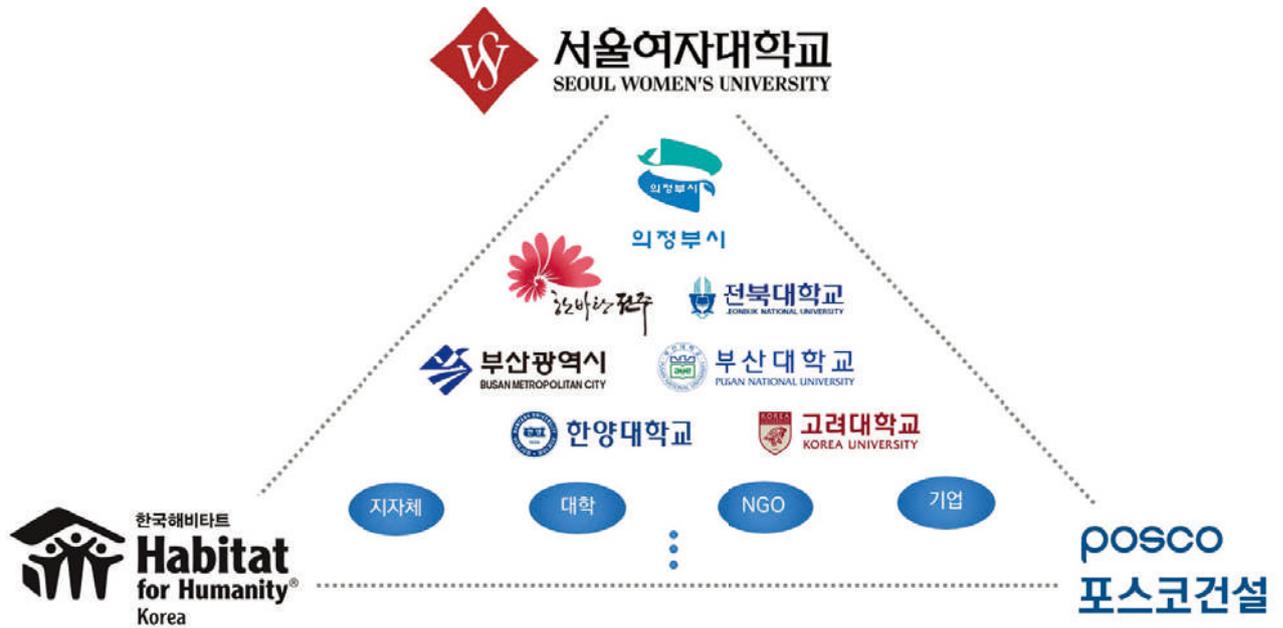


2021 전주시 '도토리골 새들마을 도시재생 해법찾기' 프로젝트

2021학년도에는 SI교육센터 비교과프로그램으로 전주시와 전북대학교가 참여하여 ‘전주시 도토리골 새들마을 도시재생 해법 찾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대학, 지자체, NGO, 기업의 다양한 관점과 접근을 배우고, 이어서 디자인씽킹 방법론에 기반한 2박 3일 현장 워크숍을 통해 마을의 필요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 제안하였다.



2021 전주시 '도토리골 새들마을 도시재생 해법찾기' 프로젝트



의정부시와 전주시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 로고 제작,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쉼터 조성, 안전설비 구축, 마을 책자 발간 등 총 19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는데, 이는 도시재생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일부 우수 아이디어는 지자체와 기업의 후원을 통해 실제 사업화 단계로 이어진다.

학생들이 공감을 통해 주민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자신의 전공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서울여대는 교육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하면서 일련의 사회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제공하였고 한국해비타트는 주민참여활동을 기획하여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포스코건설과 지자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지역사회에 실현되도록 추진하였다. 민관학협력 사회혁신 프로젝트는 '문제의 현장'이 학생들에게 '배움의 장'이 되고, 학생들의 '배움의 결과'가 '실질적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혁신 사례이다.

오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는 부산광역시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부산대학교,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참여 지역과 기관을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준

세명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센터장

세명대학교 CHARM 역량 기반 비교과프로그램 통합 관리체계 구축

1. 구축 필요성 및 목적

대학의 인재상은 학교가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길러 내고자 하는 인재의 모습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대학의 전략이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다. 즉, 핵심역량은 대학의 교육 목표와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특히,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교육과정은 대학의 비전과 교육철학에 따라 대학 경험(college experiences)을 축적한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맡겨진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명대학교는 'No. 1 for Student Experience'를 표방하면서 이를 추동하는 핵심역량으로 참(CHARM)*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다양한 형태의 '참(CHARM)' 경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비교과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개설 및 운영되었다. 그러나 비교과 교육과정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도 필요하다.

특히, 단과대학 및 학과 단위, 유관부서에서 다수의 비교과프로그램들이 산발적 또는 중복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비체계적인 교육 지원 체계는 지양해야 한다. 이에 우리 대학은 산재된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CHARM 역량 기반 비교과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비교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에서 성과관리, 개별 학생의 역량분석 및 프로그램 이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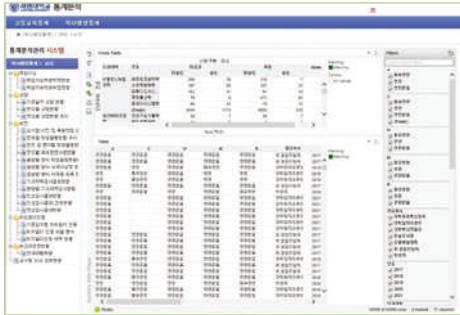
2. 구축 내용 및 성과

<CHARM 역량 기반 비교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 프로세스는 1) 비교과 통합 관리체계 마련, 2) 비교과 데이터마트(Data-Mart) 구축, 3) 비교과 추천 알고리즘 구현, 4) 비교과 통합관리제 운영으로 구분된다.

1) 비교과 통합 관리체계 마련

:비교과 프로그램별 CHARM 역량 부여 및 이에 따른 프로그램 편성·운영, CHARM 역량 지수화

(CHARM)* : Confidence(자기주도역량), Humanity(나눔과 배려역량), Adaptability(환경적응역량), Relationship(대인관계역량), Mastery(전공역량)



2) 비교과 데이터마트 구축

- ① 단과대학, 전공별 비교과프로그램 참여학생 수, 승인·미승인 학생 수 확인 가능
- ② 세부 검색조건을 통해 우리 대학 비교과프로그램의 학생참여현황을 통합적으로 검색 가능
- ③ 세부비교과프로그램별 학생참여명단을 통해 비교과 운영현황 파악
 - ▶ 객관적 DB 기반 학생 참여 정보의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의 분류 및 CHARM 역량별 매칭 체계 수립을 통한 역량기반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3) 비교과 추천 알고리즘 구현

- ① 학생들의 비교과 CHARM 역량지수를 진단하여 부족한 역량을 보완시켜줄 비교과 프로그램 추천
- ② 현재 시행중인 비교과프로그램 중에서 학생의 부족한 역량과 핵심역량이 일치하는 비교과프로그램 목록 추천
- ③ 학생 개인의 비교과 CHARM 역량지수와 연계하여 비교과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하는 프로세스 구현
 - ▶ 비교과 추천 알고리즘 구현을 통해 학생 개인별 비교과프로그램 추천, CHARM 역량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대학생활 촉진 및 개인별 맞춤형 역량개발 지도 서비스 제공

4) 비교과 통합관리제 운영

: 각 부서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서 입력을 의무화하여 전체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성과 통합관리, 전체 113개 비교과프로그램 CQI 취합 및 운영성과 파악, CHARM 역량별 대표 비교과프로그램 선정



3. 기대효과

〈CHARM 역량 기반 비교과 통합 관리체계〉를 통해 우리 대학은 대학의 비전과 교육철학에 따라 대학 경험(college experiences)을 축적한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맡겨진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인공지능시대에 많은 대학들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학부교육 질 관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CHARM 역량 기반 비교과 통합 관리체계〉는 데이터 기반 질 관리를 통한 선진적 대학교육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이정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R센터 책임연구원

학생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우리 대학은 ‘학생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WISE 교육혁신모델 구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은 입학에서부터 취업까지 학사 중심의 데이터와 비교과, 봉사, 국제교류, 동아리, 상담 등의 활동 관련 데이터를 취합하고 축적된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적절한 인사이트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고 행정부서나 의사결정자들에게 데이터 기반의 학생 중심적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데이터 통합 분석 시스템 개발 목표는

- ① 데이터 기반의 교육 질 관리체계 구축
- ② 빅데이터 기반 대학교육 효과성 분석 및 환류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③ 교육현황의 시각화를 통한 전략적 의사결정 시스템 지원
- ④ 단순 반복적 작업 최소화로 분석 업무 효율성 증대
- ⑤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관리방안 지원 및 분석의 질 향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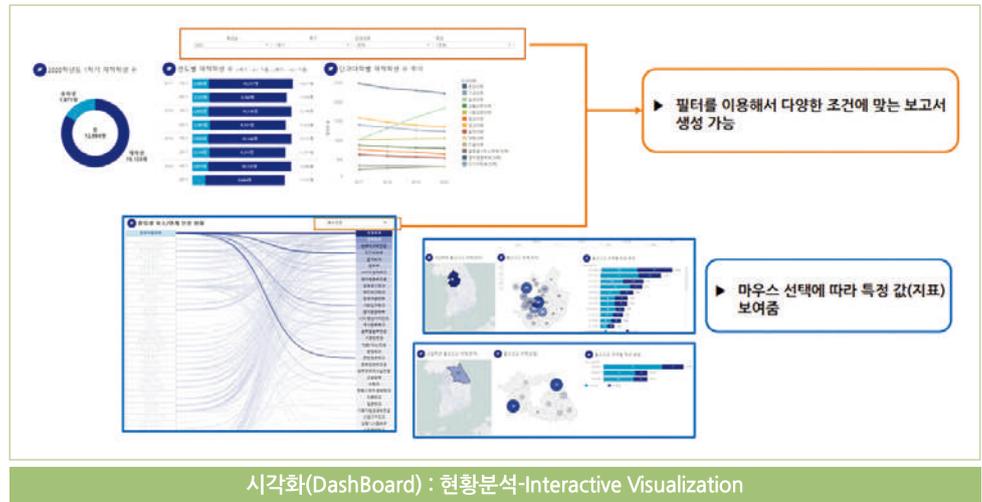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단계	내용
1	【학생이해】 현황분석과 모델링을 통한 우리 대학 학생의 다양한 성향 등을 분석
2	【기획 및 정책수립】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차별화된 관리방안 도출
3	【실행】 관련 부서에서 관리방안 실행/과정 및 결과를 대학R센터로 피드백
4	【결과분석(환류)】 운영부서의 피드백 분석/결과분석을 통한 분석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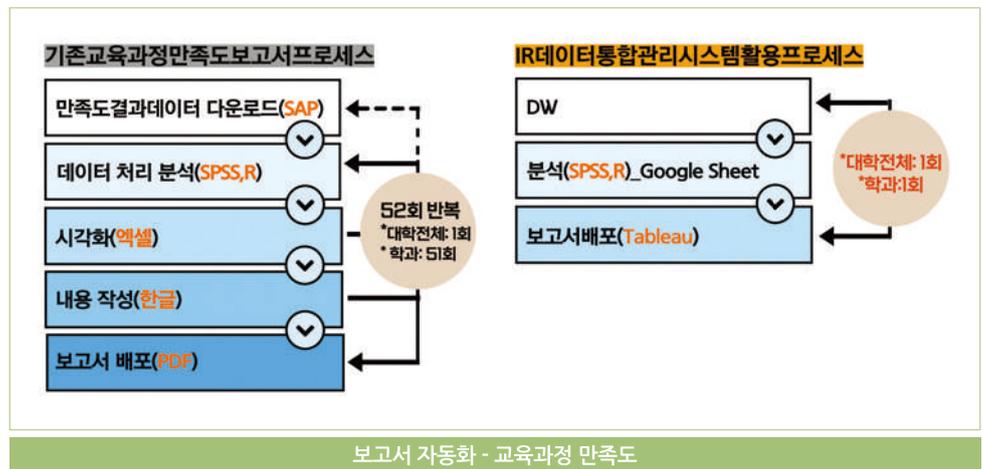
위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단편적으로 운영되는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주제 중심적이며 시계열 형식으로 취합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분석주제별로 분석마트를 생성하여 다차원 관점에서 학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시 중점을 둔 부분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데이터 품질을 판단하는 5가지 기준(완전성, 유일성, 유효성, 일관성, 정확성)을 충족하기 위한 3가지 방법(원천시스템과의 비교, 공시데이터 및 정기보고서 비교, 업무 규칙과의 일관성 확인)으로 검증하고 있다.



현황 분석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유형과 데이터를 어떠한 목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 적절한 차트와 테이블을 선정하여 제공한다. 또한 하나의 보고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관점에 따른 보고서를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서 생성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기존 교육과정 만족도 보고서는 매학기 학과별로 동일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했지만,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데이터 처리부터 보고서 배포까지의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여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였다.



2021년에도 고급 분석 기법(알고리즘, 통계분석 등)을 활용하여 고도화된 분석과 분석마트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석 및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인서

연세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책임연구원

언제 어디서나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학습지도를 위한 시튜터

시기술을 활용하는 학부교육 혁신

최근 들어 AI 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고등교육의 교수학습 분야에서의 AI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교육 환경에 시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은 디지털 기술을 단편적으로 교육에 도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AI가 학습의 과정에 보다 정교하게 관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시를 활용하는 학습(Learning with AI)이 가능해지면서,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 도구나 모니터링 도구가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시튜터

연세대학교는 교수-학습 과정에 시 기술을 적용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극복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생 개인별 학습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시를 교수-학습 과정에 적용하면 시를 활용하여 학부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에 대한 학생 개인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수자 1명이 모든 학생 개별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학습 지도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초 지식 습득이 필수적인 전공 분야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기초 지식을 완벽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들은 기초 지식을 완벽히 습득하지 못한 채 학기를 마무리하기도 한다. 시 기술을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 상에서 초기 지식을 확인하는 문제를 풀고 나면, 학생이 제출한 내용에 반응하는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 프로그램이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문제와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강의 환경에 한정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학습하여 학습 동기와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교수자는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학생 개인별로 학습 지도를 해주는 시튜터가 생기는 셈이다.

연세대학교는 지식의 축적이 '특히' 중요한 통계학 과목에 학습자 맞춤형 시튜터 프로그램을 2021학년도 1학기 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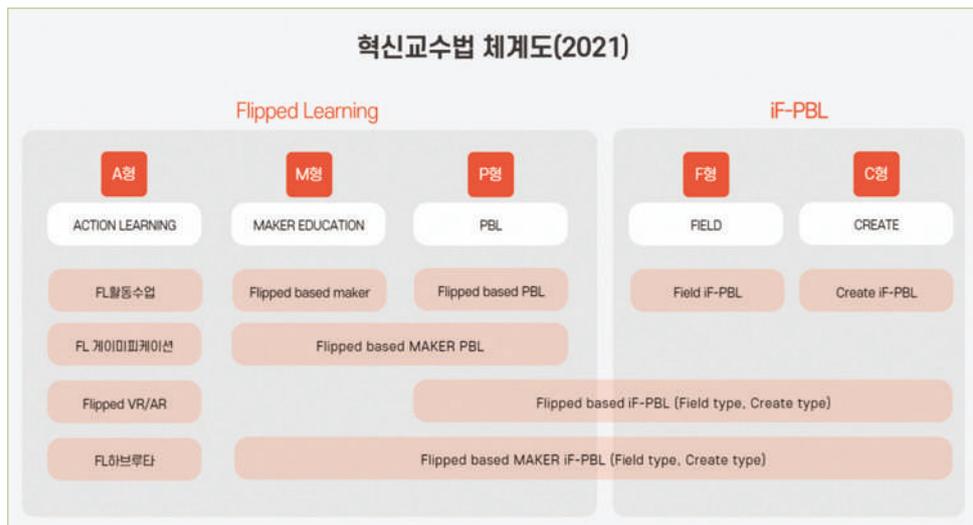
허정필

울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울산대학교형 혁신교수법 Flipped Learning & iF-PBL

- 울산대학교는 양대 혁신교수법으로 Flipped Learning과 PBL을 울산대학교에 맞게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Flipped Learning은 활동수업의 유형에 따라 PBL(P형), MAKER(M형), Action Learning(A형)으로 구분하여 교과목의 특성과 전공 그리고 학습자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다.
- iF-PBL은 산업체 장기현장실습과 캡스톤 디자인의 장점을 결합한 현장-프로젝트 기반의 교육모델로 현장의 개념을 확대하여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 전공지식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들을 강의실로 가지고 와서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과목이다.

연도	Flipped Learning	iF-PBL
2016	17강좌	-
2017	42강좌	-
2018	64강좌	-
2019	67강좌	13강좌
2020	109강좌	19강좌
합계	300강좌	32강좌
운영	2020-1 부터 A형, P형, M형 구분하여 운영	2020-2 부터 실제문제F형 창의문제C형



Flipped Learning 기반 혁신교수법 운영		울산대학교형 iF-PBL 운영	
교과개발 및 운영 (5년간 300강좌 운영)	사례공유 및 컨설팅 (28회 컨설팅, 사례집 4회 발간)	교과개발 및 운영 (2년간 44강좌 운영)	사례공유 및 시상 (3회 경진대회 실시)
Flipped Learning 개발비, 수업운영 교수법 세미나, 우수사례 발표회 실시	혁신교수법 컨설팅실시 우수성과 공유회 실시	PBL과제 개발비, 프로젝트활동 운영비, 학생 팀별 회의비 지급	매학기 경진대회 실시 우수사례 시상

우수사례 : Flipped Learning(M형)디자인교과목, iF-PBL(F형)화학

팀별 성과물1. 일회용 제품 감소 유도 프리미엄 배달용기 디자인 제안



팀별 성과물3. 홀로그램 높이를 통해 손씻기 실천을 위한 디자인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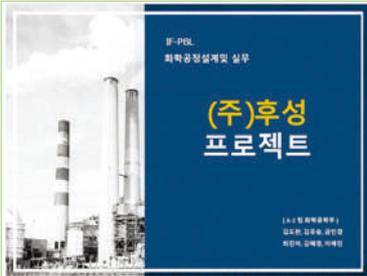
팀별 성과물2. 휴식과 운동의 연결이 쉬운 가구



팀별 성과물4.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전동스쿠터



2020-2학기 유형별 우수사례 발표(아이디어 디자인)



냉매 가스와 반도체 특수 가스를 생산하는 국내 최고 기업인 후성그룹 화학공장의 실제 문제를 IF-PBL 과제로 가져와서 제기되어지는 때 톨루엔의 순도를 높이는 공정을 설계하여 비용을 줄여서 제기하던 때 톨루엔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제해결 과제로 PBL 활동을 수행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0-2학기 경진대회 대상수상 실제기업 문제해결사례

- 산업디자인 교과목에서 아이디어 디자인 결과발표로 Flipped 기반 Maker형 우수 수업사례로 선정되었다.
- 후성기업의 실제문제인 폐 톨루엔 재활용 PBL과제를 전공(화학공학)과 연계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아이디어로 폐 톨루엔의 순도를 높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우수 수업운영사례이다(2020-2 대상수



김소연
제주대학교
대외협력과 연구원

교육품질 체제 구축을 위한 교수 역량 통합 관리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빠르게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기술발전(빅데이터, SW, VR 등) 및 환경변화(코로나 19 상황의 미래교육 등)에 따라 개별 학습자와 교과 특성에 맞춘 다양한 매체 활용 교수 역량이 요구되면서 사회 및 교육 환경의 변화가 대두되었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의 급격한 전환에 필요한 교육자료 준비 및 구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강의체계 구축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교육과정 개편 연구용역 조사결과(20.11.7. 실시)를 반영하여 교원 교육개선활동의 체계적 기반은 존재하였으나, 교육의 효과적 달성 및 관리를 통해 환경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 전환기별 로드맵 제시가 일어나게 되었다. 교육활동개선을 위한 교수학습센터 운영지침의 제정이 이루어졌고(2021.2.23), 교수업적평가 세부지침을 개정(21.2.26)함으로써 교원의 참여율을 제고하였다.

또한 교원 생애주기와 연계한 '지원-개선-확산'의 3단계별 맞춤형 교육 제공 및 조직 간 관련 제도의 상호개선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로드맵을 추진하게 되었다.

추진방향 및 내용

수동적이고 참여형의 모습을 가진 교수지원의 모습에서 능동적이고 확산형 모습으로 변화시켜 교수지원에 대한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3개년의 계획을 잡고 진행되었다.

대학 발전계획	혁신적 교육운영체계 및 학습관리체계 구축		
차시	1차	2차	3차
목표	Untact (noncontact)	On : tact	溫 : tact (Inter-tact)
방향	(교수자의) 교육 방향성 제시	(전환기 교수자에 대한) 교육 환경의 탄력적 대응	(교수자-학습자 간) 교육의 연결성 확대
내용	사회·환경의비대면 중심 변화에 따라 온라인 교육체계가 강화되어 시·공간 제약없이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양방향 교육 시스템 구축	교수자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연결(On)함으로써 교수법 개선 지원	교수·학습자간 소통을 향상시킴으로써 원격으로 학습할 수 없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동기 유발 확대·강화
대표 (세부)프로그램	교수 콘텐츠 공유 서버 (LMS→jnudass 구축),	온·오프라인 교원 연수지원, 매체제작 지원 등	교수법 마스터, 교원 학습상담사 등



이번 2021년도에는 요구분석과 교수 단계별 전환기 중심의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월부터 진행된 교수자 역량진단 및 의견수렴(연 4회)을 통해 교수·학습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할 것이며 교수자 생애를 경력(성장-발전-심화)에 따라 구분하고, 교수지원에 대한 과업을 설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교수 생애 단계별 전환기와 연계하여 교육을 지원할 것이다.

- 성장+지원: 임용 후 3년 이내 신입교원을 중심으로 수업·대학 적응 교육 지원 및 전체 교원대상 개별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제공
- 발전+개선: 임용 후 3년 이후 교원을 중심으로 매체 활용 및 교원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성장도모 지원 ⇒ 교육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 프로그램 제공
- 심화+확산: 전체 교원대상(퇴임 전 3년 이내 교원 중심)으로 우수 교수사례 및 교육모델 발굴·공유 ⇒ 우수 교수사례 공유 프로그램 제공

기대효과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내·외로 축적된 데이터의 기초자료 및 진단 결과 등의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 시대 변화와 사회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수요를 한·장기적 관점의 생애주기 단계별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제적 참여율을 제고하여 정량적 성과 확대 및 교수지원 환류체제 확립을 통한 정성적 성과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수-학습자 간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격만으로 학습할 수 없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동기 유발을 확대·강화하여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환류 시스템 구축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교육환경에 반영 가능한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교수와 학생의 소통 향상을 통해 정서적 거리를 완화시킴으로써 학습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김영찬

한동대학교
전략기획팀 팀원

창의성 함양과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중심 학사제도-학부생 자유학기제 운영

한동대학교는 재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참여와 현장문제 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중심 학사제도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이수자와 참여 기관의 호응과 함께 여러 교육 관련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재학생의 자율적 체험과 참여 위주의 활동 지원을 통해 창의성 함양, 학습역량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 비전탐색과 진로개발 등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학 중 1개 학기를 자유학기로 수행하고, 실행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생중심 학사제도로써 2015년 전국 대학 최초로 본 제도를 시행해 온 이래 현재까지 정규 교육과정으로 지속 운영해 오고 있다.

운영 배경

자유학기제 운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교수자 중심의 전통적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활동을 탈피하고 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관심 분야에 대한 학습계획을 마련하여 1개 학기 동안 관련 현장에서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개인의 꿈과 비전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9년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현장문제 해결형 교육과정에 대한 재학생들의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고, 본교는 이를 사업에 반영 및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지원책 확대 등을 통해 본 사업 이전에 실험적으로 운영하였던 학사제도를 안정화 및 고도화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 운영

자유학기제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엄정한 학사관리와 질 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고, 운영의 객관성을 위해 자유학기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이수 대상자 선발, 현장 활동 모니터링, 성과평가, 이수자 및 참여 기관 만족도 분석,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관부서인 교무처 외 기획처, 국제처, 학생처, 산학연구인재개발처 및 이수자 소속 학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실행과정

자유학기제를 고도화 및 활성화하기 위해 주관부서를 통해 매년 관련 위원회와 이수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운영제도와 재정지원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대학교육프로그램 혁신 교책 연구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 효과성 분석과 함께 재학생의 관심과 참여도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외 우수사례 책자 발행 및 재학생의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참여 기관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

운영 성과

사업기간 중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타 기관 벤치마킹 요청 응대를 통한 운영 노하우 공유, 대외 언론사를 통한 추진 사례 전파 및 교육기관 연구 인용 등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어 고등교육 혁신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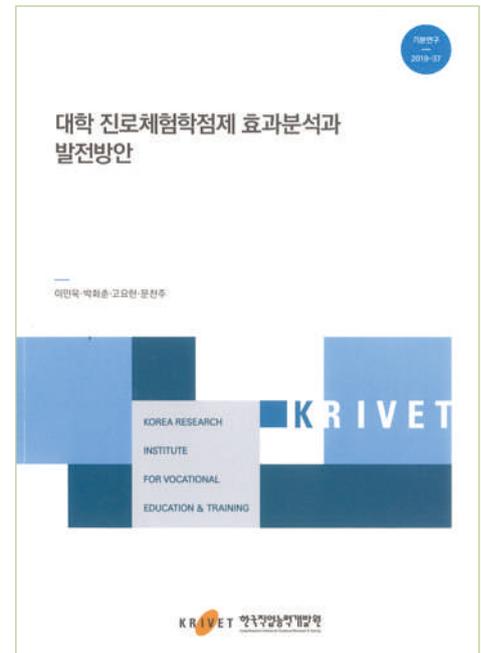
교육과정 운영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재	비고
이수자(명)	44	58	36	
실행영역	현장실습(인턴십), 창업활동, 프로젝트 수행	좌동	현장실습	
인정 학점	3~12학점	1~12학점	3~12학점	
참여자 만족도(점)	4.3	4.33	4.19	5점 척도
기관 만족도(점)	-	4.86	4.84	"

- 타 기관 벤치마킹 요청 응대 및 사례 확산을 통한 노하우 전수
: 2019년 2개 기관, 2020년 2개 기관, 2021년 1개 기관
- 대외 언론사를 통한 사례 확산
: 조선일보(하고픈 활동이 그대로 학점으로...新 학사제도 학생설계 학기제), 교수신문(POSTECH-한동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포럼 개최)

- 고등교육 정책 등 영향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학 진로체험학점제 효과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인용(2019.12월), 교육부 주관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 설계 시 모델 사례로 활용





홍성재
한성대학교
창업R&D센터 교수

대학평균 2배의 학생 창업기업 배출하는 한성대, 창업가이드북 2.0 발간



주요 내용

학생 창업기업 수가 대학 평균의 2배인 한성대학교. 독특한 교육 모델인 최소 단위의 전공 교육과정인 '트랙제'를 적극 활용한 융합형 창업교육 실행. 창의 융합형 창업을 돕는 창업가이드북을 발간하여 학생 창업가에게 가이드 제시.



참고 사진 : 한성대학교 창업가이드북 Ver2.0_디자인 by 스튜디오 브릭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한성대의 2020년 학생 창업기업 수는 21개로 대학정보공시에 따른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7.5개 (2018~2019년 평균)의 2.8배에 달하며 창업에 강한 대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2018년부터 한성대 학생들의 창업 의식은 꾸준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창업관련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59.6%가 창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성대는 대학내·외부로 창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8년 25과목이었던 창업 수업은 2020년 45과목으로 늘어났고, 창업 시제품 제작비는 2018년(약 583만원) 대비 2020년(약 4,429만원) 7.5배로 커졌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창업 수업에 보다 많이 유입되었고, 시제품 제작비까지 지원하는 실전 창업 수업을 통해 활발하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성대가 가진 독특한 교육시스템이 있었다.

‘트랙제’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전공 대신 2개 이상의 초소형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성대가 2017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학문-학제-학과 간의 장벽을 허물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융합교육을 통해 창업의 성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 창업지원 로드맵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성대학교 창업가이드북’이 만들어졌다.

창업지원팀을 중심으로 그간의 노하우를 집대성하여 가이드북으로 엮어낸 것이다. 1학년에는 창업기본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2학년은 창업아이템 개발, 3~4학년은 창업아이템 사업화에 중점을 맞추어 단계별로 지원한다.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한성대가 특화 지원하는 HS 기술/디자인 창업 School을 운영하고 학생 창업가의 어려움을 도와줄 한성 CEO발굴 멘토링을 제공했다.

또 다양한 전공자들이 창업동아리를 만들 수 있게 융합형 창업캠프를 운영했으며 주기적으로 다양한 창업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좋은 창업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시제품 제작지원을 지원했다.

창업가이드북은 그간 한 눈에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창업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및 생산 프로세스까지 담아낸 캠퍼스 창업 안내서이다.

운영내용 및 성과

패션디자인전공의 4학년 학생은 창업교과목, 창업동아리를 거쳐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받아 최근 회사 매출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6배나 성장시켰다. 창업지원팀의 가이드를 충실히 따르고 다양한 교내의 창업지원 자원을 활용한 결과였다. 본 가이드북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면서 늘 이야기한다.

“여러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최소 3개에서 4개의 직업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하나의 방법으로 창업을 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시절 창업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실패도 미리해보는 것이 보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성대학교 창업가이드북은 이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한성대학교 창업현황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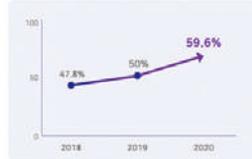
창업자 / 창업 기업 배출

- 창업자 수: 4년제 대학 평균 대비 **2.5배**
 - 창업기업 수: 4년제 대학 평균 대비 **1.8배**



창업 의식 변화

- 창업 의식 변화: 긍정적 답변 47.8% → **59.6%** 증가



창업 교과목 확대

- 창업자 교과목 수: 2018년 대비 2020년 **1.7배** 증가
 - 창업 교과목 이수자 수: 2018년 대비 2020년 **1.3배** 증가

분류	창업 교과목 수	창업 교과목 이수자 수
2018	25과목	1,884명
2019	29과목	1,474명
2020	44과목	2,397명 (예상)

창업 시제품 제작비 지원 확대

- 시제품 제작비 지원 횟수: 2018년 대비 2020년 **4.7배** 증가
 - 시제품 제작 지원 금액: 2018년 대비 2020년 **6.9배** 증가

분류	지원 횟수	지원 금액
2018	25회	5,632,278원
2019	29회	21,302,770원
2020	44회	40,631,402원 (예상)

창업의 개념과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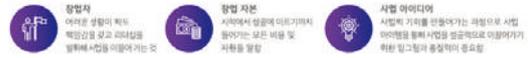
창업의 개념

- 창업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 기업을 새로 만드는 일' 또는 '창업자가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자원을 결합해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일' 등으로 정의

창업의 의미

- 개인적 측면: 부의 창출과 자아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함
 - 국가와 사회적 측면: 경제의 혁신성과 유연성을 제고, 신규 고용창출을 증대하는 것에 기여
 -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

창업의 3요소



***여기서 잠깐! 창업과 취업은 반대기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

창업의 경험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도, 취업의 경험으로 좋은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도 있음

투자역으로 보는 창업 트렌드 |



한성대학교 창업가이드북 Ver.2.0 세부내용 1

시제품 제작 및 생산 프로세스

창업아이템 사업화

시제품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 |

1.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치'를 느끼도록 만든다.
2. 고객이 제품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든다.
3. 제품이 고객의 리뷰를 통해 '칭찬'될 수 있도록 만든다.

시제품을 만들 땐, 고객에게 물어보자! |

※ 고객 인터뷰: 창업 준비를 위한 사전 고객 인터뷰 일정

인터뷰 목적	날짜 / 시간
발매자	장소
고객 유형	최종 사용자 / 구매 영향자 / 구매 결정자 / 구매 가능자 / 의사 결정권자
고객 프로파일	*연령/성별/가족구성/소득/직업/교육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사항 고려 *라이프스타일/취향/성향/사태개념 등 심리분석 통한 고려 *구매경로/구매빈도/사용장면 등 행동기반 통한 고려
인터뷰 질문	인터뷰 답변
1. ...	1. ...
2. ...	2. ...
3. ...	3. ...
4. ...	4. ...
5. ...	5. ...
고객의 불편함	고객의 니즈
고객 인터뷰 후기	

시제품 제작 및 생산 프로세스

창업아이템 사업화

사례 A |



기능성 패션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창업



사례 B |



디자인과 IT기술을 결합한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창업



사례 C |



화장품 및 뷰티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창업



*기타: 시제품 제작시간이 필요할 땐, 창업지원 팀으로 문의하세요.

한성대학교 창업가이드북 Ver.2.0 세부내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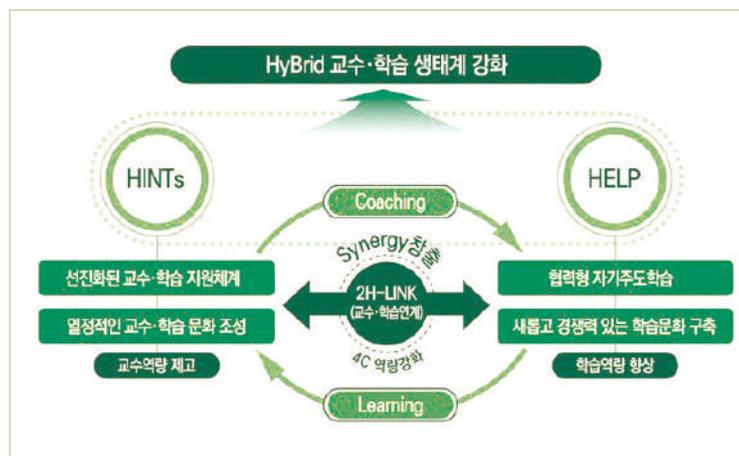
김정선
호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본부 팀원

HOPE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역동적 교수 - 학습 방법 적용(Hi-PBL)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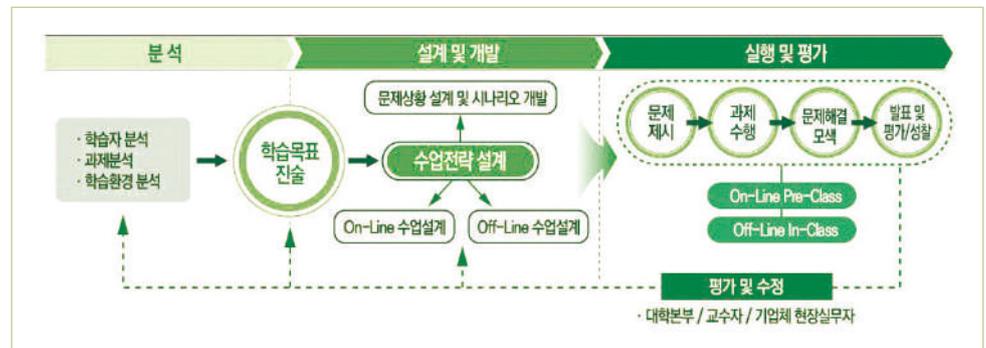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HINTs(Howon Initiative for New Teaching Competencies) 프로그램의 개선 및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교수역량 강화 및 교수학습방법(Hi-PBL, Howon industry, interaction, interest - Problem Based Learning)을 도입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수업 문화를 구축하여 학습자(재학생) 중심 수업 실현을 위한 호원대학교만의 PBL 교수모형 적용으로 Hybrid 교수·학습 생태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2. 추진 목적 및 체계

호원대학교 인재상인 HOPE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차별화된 교육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천적 능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Hi-PBL 미래형 수업모델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교수역량을 제고하여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방법 적용으로 재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3. PBL 활동 및 운영 결과 (대표사례교과 : 종합자 간호)

Module : 흉통을 호소하는 대상자 응급상황 관리

3.1 PBL 모듈 요약

- PBL-1 흉통을 호소하는 대상자 응급상황 관리
 - ① 흉통을 호소하는 대상자가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 ② 간호사는 흉통의 양상, 악화증상, 완화증상, 과거력, 동반증상 등을 확인하고 의사에게 환자의 도착을 알린다. (order 1 발생)
 - ③ 간호사는 order 1에 따라 간호수행 및 환자교육을 시행한다.
 - ④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심전도가 변하고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어 의사에게 알린다. (order 2 발생)
 - ⑤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을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3.2 PBL 활동 자료

구분	학습자 활동 자료 목록	교수자 운영 자료 목록
수업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편성 조사표 • 학습양식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편성 조사표를 기초로 팀 구성 • 학습양식 검사자료 참조
수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분석지 • 팀 활동보고서 • 인터뷰 활동 계획 • 인터뷰 활동 결과 보고 • 문헌 연구 계획 및 결과 • 해결방안 제시 및 점검 • 성찰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분석지 • 팀 활동보고서 • 인터뷰 활동 계획 • 인터뷰 활동 결과 보고 • 문헌 연구 계획 및 결과 • 해결방안 제시 및 점검 • 성찰일지
수업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PBL 성찰일지 • 문제평가 분석 • PBL 수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평가서 • 문제해결안 평가표 • 학습자 성찰일지 평가



3.3 PBL 운영 결과

- ① Module에 대하여 심화학습을 하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졌다.
- ② 아울러 팀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팀원끼리의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 ③ 리더에게도 건설적인 제안을 하며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 ④ 학생들에게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 교수·학생의 상호작용 또한 매우 의미가 있었던 교수법이었다.

4. 향후 추진 계획

- ① 전공 교육 질 향상 체계의 지속적 개선으로 지역 대학 교육 선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② 성과사례 공유를 통한 학문별 전공 능력 및 전문성 향상과 사회요구를 반영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 ③ 교수자의 새로운 교수법 연구 및 개발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여 선진화된 교수·학습 지원체계 구축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 기대한다.



조기원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재학생

대학혁신지원사업 융합 특성화 사업을 통해 다가가는 연구자의 꿈



복학 이후, 2학년 즈음부터 대학교 공부는 무엇을 위해 하는지, 이러한 공부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주변에서 학부생으로서의 공부는 회사생활에 큰 도움은 안된다고, 회사에 가면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기도 했다. 그런데, 이 생각들에 마냥 동의하기에는 저는 실무경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진득하게 쌓아온 지식도 특별히 없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학문, 예를 들어 최소한 4대역학에 대해 '무엇을 위한 공부인지 안다'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학과공부에 매진했다. 그리고 이론에 대한 지식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다. '이 지식은 어떤 식으로 쓰일까?', '교수님들께서는 학부생들에게 왜 이론을 가르쳐 주실까?', '지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 방법은 없을까?', '연구는 어떤 대상의 수요로부터 시작되는가?' 등 여러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특성화 사업 중 'Capstone Design : 실전문제연구단 산업체 연계 프로젝트(트랙2)' 과정을 동아리 선배들에게 추천받았다. 현직자와 소통할 기회가 있으며 '연구'라고 불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고 들었다.

따라서 스마트팜 관련 과제에 지원을 했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실제로 접해보니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과정은 기본적인 이론지식으로부터 나왔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먼저 이론지식이 베이스가 되어 직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품개발설계 과목에서 프로젝트 정의, 제품 정의,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사후 평가 프로세스를 이론적으로 배우면서 실천적으로 이 지식을 활용할 기회가 생기니 이론과 현실의 간극을 이해할 수 있었고, 연구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에 실제로 연구실에서는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어떤 메커니즘으로 진행할까 궁금했던 차에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통한 학부연구생 모집이 있어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실에서 선배님의 실험 연구 보조를 하면서 연구의 과정부터 의의까지 세심하게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우고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실험일지라도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실험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밀한 장비를 사용하고, 논문을 추적하고 정리하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지 배울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제품개발설계와 연구실의 경험을 살려 대학혁신지원사업 융복합 프로그램 중 하나인 'ARTECH 공모전'에 참가했는데, 3명의 팀원 중에서 연구라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살려 아이디어 도출, 데이터 분석, 제품 설계,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성능 평가까지 간략하지만 섬세하게 연구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

이렇듯 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에 너무나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덕분에 하버드메디컬스쿨의 연구보조직에도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어떤 자세로 활동들에 임하는지가 자신의 앞길에 있어서 직업적인 정체성을 결정하고,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는 준비성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와 같은 학부의 동기들, 후배들, 나아가 많은 대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를 추천해주고 싶다.





박주연

청주대학교
영어영문학전공
학부생 2학년

PBL 수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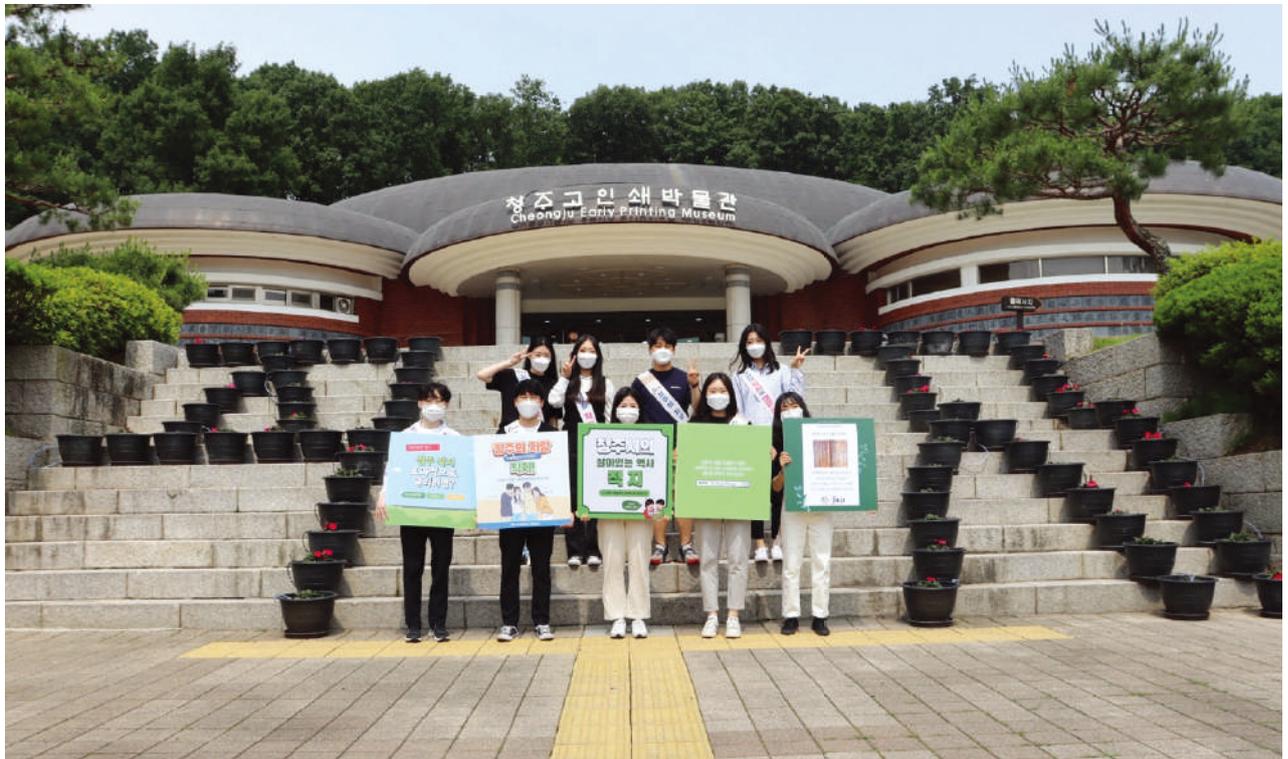


누군가 PBL 수업에 다시 참여하겠냐고 질문을 한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라고 답할 것이다. 이유는 PBL(Problem Based Learning) 수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때문이다. PBL 수업은 나에게 값진 경험을 선사해줬으며,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우리 팀은 ‘청주 전시관의 영어번역 오류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청주 전시관에 방문하여 영어 번역물을 관찰했을 때 문법적인 오류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읽히는 문장이 다수 발견되어 PBL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주 시립 전시관의 영어 번역물 수준과 국립 및 사립 전시관의 영어 번역물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을 설정한 뒤 전시관을 탐방하였다. 청주(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시립미술관), 국립(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사립(삼성리움미술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전시관의 영어 번역물을 여섯 개씩 무작위로 선정해, 총 18개의 번역물을 24명의 영어권 화자에게 5점 만점의 척도로 설문조사를 부탁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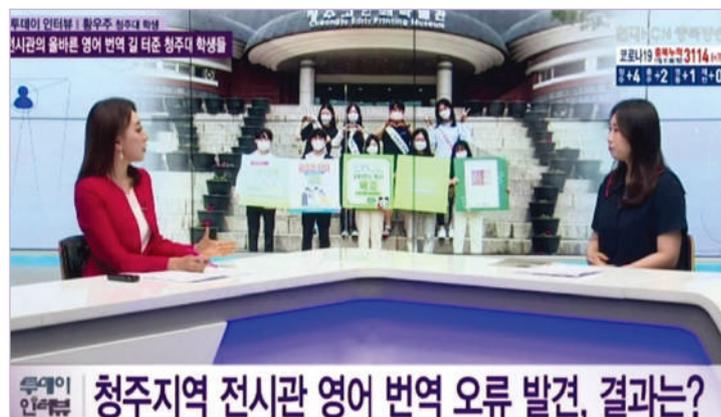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세가지 유형의 결과값을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비교하였고, 세 지역 전시관의 쌍별 비교를 위해 t-test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청주 전시관의 경우 약 3.0점, 국립 전시관의 경우 약 4.0점, 사립 전시관의 경우 3.92점을 받았다. 국립 전시관과 사립 전시관의 경우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주 전시관의 점수는 국립 및 사립 전시관보다 낮은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청주고인쇄박물관과 청주시립미술관의 결과값을 추출하여 쌍별 비교를 하였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영어번역의 경우 약 2.5점, 청주시립미술관의 경우 약 3.5점을 받았다. 이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이 결과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영어번역물이 수준 높은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영어번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영어번역의 오류를 바로잡는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우리 팀은 활동하게 된 배경,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 결과, 영어번역물의 Before&After가 담긴 수정 사례,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담은 소책자를 제작해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전달하였다. 또한, 순수하게 전시물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적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카드 뉴스 기반의 품보드를 제작하고 어깨띠를 매어 직지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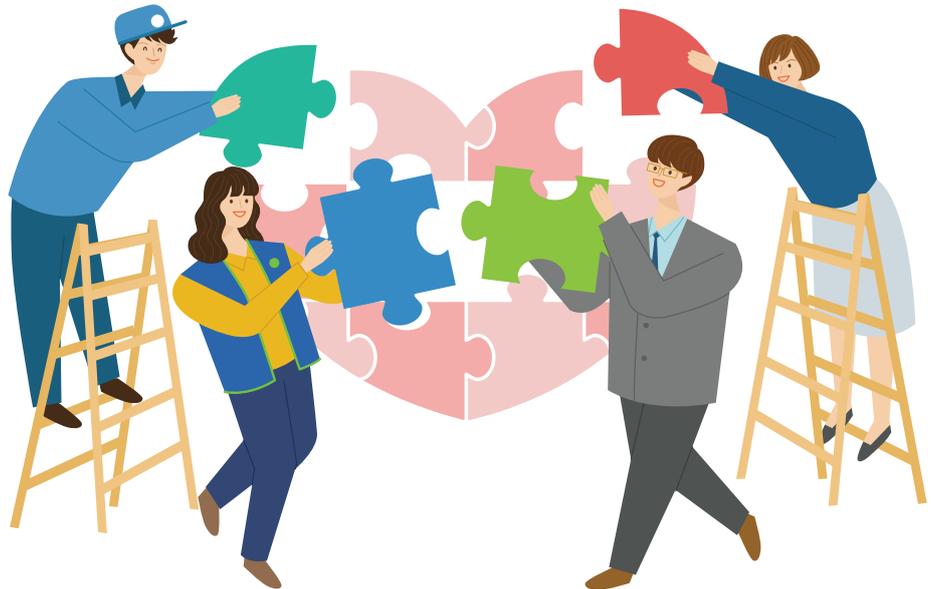
뿐만아니라 직접 청주고인쇄박물관의 담당자와 면담하면서 수준 있는 영어 번역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우리 PBL 팀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모습과 관련하여 “청주대, 지역 문제 찾아 해결 방안 모색 눈길”이라는 제목으로 지역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부터 나는 우리 팀의 움직임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지역 신문에 보도 자료가 나간 이후에 CJB 8시 뉴스팀으로부터 우리 팀의 활약상을 보도하고 싶다는 제의가 들어왔다. 나는 CJB 8시 뉴스에 직접 출연하고 싶은 마음에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출연을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고민만 하다 놓쳐 버린 기회가 아쉬움으로 오래 머물렀던 순간들을 겪어 왔기에 이번에는 꼭 참여하고 싶었다.



단순히 청주 전시관의 영어 번역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되었던 수업이 청주 CJB 8시 뉴스까지 나온다는 것을 통해 작은 움직임이어도 시도를 해야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팀은 뉴스 보도를 통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서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니는 훌륭한 직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외면 당하는 상황, 오류가 가득한 번역물로 전시관을 운영하는 문제점, 그리고 올바른 영어 번역물을 준비하는 것의 시급함을 이야기함으로써 청주시민의 건전한 비판과 관심을 유도하였다.

CJB 8시 뉴스 출연은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큰 사회를 경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마음을 울리는 긴장감을 얻을 수 있었다. 시도조차 안 해보고 포기해버리는 일이 스스로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도를 하고자 움직여 보니 열정이 부족하여 생긴 회피였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재현된다는 말이 있듯이 경험하지 않고서 완벽한 상태를 바라는 것은 큰 욕심이다. 누구나 처음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과거를 통해 스스로가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나아가는 방법은 몸소 경험하여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PBL 수업을 통해 깨달게 되었다.





김나현
경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구원

즐거운 교육 축제, Disco-Festa



경남대학교 경험기반학생성공센터는 각 학과 및 행정부서와 연계하여 구성원 모두를 위한 교육축제를인 'Disco-Festa'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Disco-Festa는 Discovery(발견하다)와 Festa(축제)를 결합한 것으로 '나'를 '발견'하고 대학축제에 교육 적 의미를 부여하며 나아가 학제 벽을 넘어 다양한 전공/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학교육공동체 문 화정착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이다.



홍보자료



영상 탑재

2019년 Disco-Festa는 다양한 전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중심의 체험형태로 운영되었으며, 152건의 프로그램 개발, 총 22,789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9학년도 (활동 사진 1)



2019학년도 (활동 사진 2)



2019학년도 (활동 사진 3)



2019학년도 (활동 사진 4)

2020년 Disco-Festa는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학생들은 학과 및 전공 소개, 랜선 합창대회 등 다양한 영상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총 204개의 동영상에 개발되어 LMS에 탑재되었다. 학생들은 영상 시청 외 영상 제작 등 오프라인에서도 참여함으로써 대학축제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16,794명 참여)



2020학년도 (활동 사진 1)



2020학년도 (활동 사진 2)



2020학년도 (활동 사진 3)



2020학년도 (활동 사진 4)

2021년 Disco-Festa는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전시관을 설치하여 △AR/VR 체험 △드론체험 △인공지능 로봇 관람 및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81개의 다양한 주제의 동영상에 제작되어 공유되었고,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이 적절히 융합되어 총 14,044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Disco-Festa는 COVID-19로 지쳐있던 학생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침체된 학내 분위기를 전환 했다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다.



2021학년도 (활동 사진 1)



2021학년도 (활동 사진 2)



2021학년도 (활동 사진 3)



2021학년도 (활동 사진 4)



이채영

동명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관리팀 직원

학생들의 Do-ing 성공의 Gateway 역할을 위한 Do-ing교육센터 신설

동명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3차년도 추진 과제 중 Boundary-Free 미래교육 학사제도 유연화 실현을 목표로 Do-ing교육센터를 신설하였다. 노성여 Do-ing교육센터장은 “Do-ing 교육 활성화 및 학생들의 Do-ing 성공의 Gateway 역할을 할 것이다”며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도전하고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실전교육을 지원하고 확산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명대학교는 전호환 총장 취임 이후 역량 중심의 실천하는 지식인 양성에 초점을 둔 두잉(Do-ing) 대학 신설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같은 예기치 못한 대변동도 잘 이겨내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인재를 양성하여 교내 전체에 확산할 계획으로 Do-ing 교육센터를 기획하였다.

주요 업무는 Do-ing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확산, 교육연구회, Do-ing 인재발굴에 필요한 제도를 제안하고 실행을 주도할 예정이다.



총장님과 교직원들이 함께 Do-ing인재 육성을 위한 명산 등정

대한민국 No.1 산학실용영문

😊 주식투자해보기
 한국 100대 명산오르기
 고전 명저 60권 읽고 독후감 쓰기
 승마, 요트, 패러글라이딩 체험 사고춤배우기
 재무제표 써보기 외국어 원어로 100곡부르기

“Do-ing”
 어디까지
 해봤나?

동명
 Do-ing
 인재

스스로 판단하고, 후회없이 도전하는 인재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인재
 Do-ing에 강한 실천적 인재를 위해
 동명이 한걸음 먼저 나아갑니다.

동명대학교

동명대학교 Do-ing 대학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전과 실천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한민국 No.1 산학실용영문, 동명대학교의 “사회에 필요한 실천적 지식인 양성 커리큘럼”입니다.

동명대학교
 DONGMYEONG UNIVERSITY



전경탁
 세명대학교
 취창업지원처 담당

재학생을 위한 세명진로 Festival

세명대학교는 과열된 취업 경쟁과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재학생의 진로/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세명진로 Festival은 재학생들이 단순 부스나 특강을 참여하는 것을 넘어 전공 외에 부분과 진로·취업과 관련하여 각 학년에 맞추어 필요한 역량, 준비과정을 중점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부터 시작되어 참여 누적인원 28,450명으로 강좌 만족도 및 참여율이 높은 진로·취업분야의 대표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학생 수요에 따라 기존 ①전체 재학생 및 지역청년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취·창업 Festival방식과 ②세명대학교 진로 로드맵에 따른 도전(1학년), 성장(2학년), 자립(3,4)학년의 학년별 맞춤형 주간 운영도 새롭게 기획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맞게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혼합형 학습(블렌디드 러닝)으로 진행되었다.

〈세명진로 Festival-1학년 도전 주간〉

Challenge Week는 5월 10일~14일까지 운영되었으며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설정, 자기계발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진로와 취업에 있어 기반을 다질 수 있게 지원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지문적성검사, 타로카드 진로상담, 명함 만들기, 퍼스널 컬러&메이크업, 시 역량검사, 리멤버 직업카드 등 9개 부스와 학부(과)별 찾아가는 특강으로 꼼꼼하게 만다라트, 사람다움 공동체 직업의식, 진로보드게임, 새싹창업 제빵, 새싹창업 무드등 등 사제동행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행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총 참여 횟수는 3,886건이며 부스프로그램 참여자 439명 중 230명, 특강 프로그램 참여자 457명 중 401명의 1학년 신입생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세명진로 Festival-2학년 성장 주간〉

Growth Week는 5월 25일~27일에 운영되었으며 2학년 재학생들이 희망 진로, 취업 분야에 있어 계획을 구체화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한 취업 준비도 검사, 진로·취업 컨설팅, 진로탐색, 현장실습, 창업지원, AI역량검사, 지문적성검사 등 13개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PSAT 핵심영역 뽐내기, NCS 핵심영역 뽐내기, 면접 이미지 전략, 구글 애널리틱스 마스터, 컴퓨터 활용능력 2급 필기/실기로 구성된 6개의 비대면 특강을 진행하였다.

행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총 참여 횟수는 5,103건이며 부스 프로그램 참여자 450명 중 293명의 2학년 재학생이 참여하였고 비대면 특강은 총 1,039명이 이수하였다.



세명진로 Festival은 축제 형식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이 참여함에 있어 접근성을 높였고 행사 참여를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얻는 동시에 진로와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개인 역량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지원하였다.

또한 참여한 학생들은 ‘코로나 중에도 뜻깊은 행사여서 인상깊다.’

‘굉장히 유익한 행사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던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 ‘내년에도 행사가 개최되면 참가하겠다.’ 등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학생들의 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세명대학교는 세명진로 Festival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전공뿐만 아니라 진로 및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8월 23일~9월 3일에 전체 재학생 및 지역 청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3회 세명진로 Festival을 운영할 예정이다.



양혜진

한양대학교
교육혁신단 교육혁신팀 직원

서울 동부권 5개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 개최



한양대(총장 김우승)는 상호대학 간의 원활한 발전교류 및 각 대학의 우수한 성과 확산을 위해 2021년 7월 2일 한양대 서울캠퍼스 HY-LIVE 스튜디오에서 '제 1회 동부권 혁신공유교류 협정 5개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혁신을 위해 한양대는 디지털 혁신 교육콘텐츠 및 기술 공유 협력을 목표로 지난 2월 경희대·고려대·성균관대·한국외대와 함께 '혁신공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대학은 글로벌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학 간 실질적 교류의 강화를 통한 공유·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 및 실천하고자 한다. 5개 대학은 협정 체결 후 협정 실전을 위해 각 대학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혁신 방향을 공유하고자 5개 대학의 순환 방식으로 성과포럼을 기획했으며, 한양대에서 처음으로 행사를 열게 됐다.

이날 포럼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례공유 및 미래 고등교육 발전방향'이라는 Agenda를 중심으로, 5개 대학 총장들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성과발표의 첫 주자를 맡은 한양대는 'Sharing Education HY-LIVE 플랫폼'을 소개했다. HY-LIVE는 온·오프 라인 하이브리드로 강연자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한양대가 세계 최초로 대학교육에 텔레프레즌스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공유교육 플랫폼이다.

한양대의 발표에 이어 △경희대가 'AR·VR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혁신' △고려대가 '문과대학 온라인 교육 플랫폼 문광(文廣)' △성균관대가 '학생성공 지원을 위한 도전학기 운영' △한국의외대가 '학생주도형 융합교육의 지향과 접근'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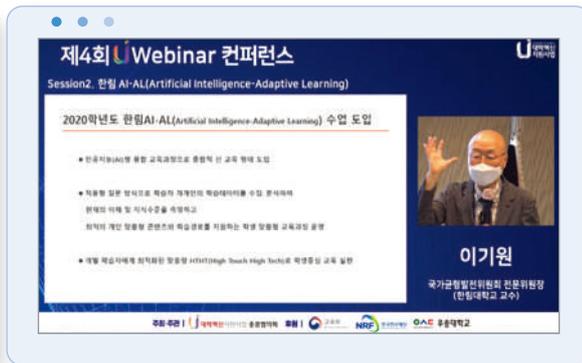
이번 행사는 혁신공유교류 협정 5개 대학 외에도 다수의 타 대학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한양대를 방문하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개별 대학이 대응하기 힘든 교육방법혁신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반대와 전문대를 대상으로 'HY-LIVE 컨소시엄' 협약을 맺음으로써 각 대학은 시·공간적 제약 없이 홀로그램을 활용한 텔레프레즌스 기반의 HY-LIVE 교육을 공유하게 된다. 이 사업은 권역내·외의 대학에 공유 확산할 예정이다.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이번 첫 포럼을 통해 대학 간 교육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성찰할 수 있었으며, 제 2회 공동 성과포럼을 개최할 것을 기약한다" 고 말했다. 한양대는 앞으로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에 맞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혁신을 거듭해나갈 예정이다.

◎주제 : 인공지능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Webinar 생중계 영상



◎ 개회식



■ 개회사.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 환영사1.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 환영사2.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김석수



◎ 개회식

■ 축사1. 국회교육위원장 유기홍



■ 축사2. 사업관리위원장 남궁근



◎ 국내외 석학 강연

■ 기조강연. Thomas Frey(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 소장



■ 기조세션1.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 기조세션2. Minu Ipe(미누 아이프) ASU 총장 고문



■ 특별강연. Marc Prensky(마크 프렌스키) 미래교육학자



◎ 국내외 석학 강연

■ 주제발표1. 대안적 대학교육 혁신모델



■ 좌장: 이강형, 발표자: Kenn Ross(켄로스), 김영록, 최진우



■ 주제발표2. 변화하는 학습자, 변화하는 대학



■ 좌장: 남기곤, 발표자: 박인우, 송해덕, 남수경



◎ 분과세션 A. 교육과정혁신

■ 좌장 : 김수연(영산대학교 부총장)



■ 사례발표1. 이동환(이화여자대학교)



■ 사례발표2. 하정은(백석대학교)



■ 사례발표3. 신선정(강릉원주대학교)



■ 사례발표4. 김희봉(목포대학교)



■ 사례발표5. 황인섭(경성대학교)



■ 사례발표6. 심재홍(한국산업기술대학교)



◎ 분과세션 B. 혁신적 교수법

■ 좌장 : 최선욱(경남대학교 교무처장)



■ 사례발표1. 김수영(동국대학교)



■ 사례발표2. 오지영(동아대학교)



■ 사례발표3. 박현준(청주대학교)



■ 사례발표4. 간진숙(한림대학교)



■ 사례발표5. 방기혁(광주교육대학교)



■ 사례발표6. 신종호(아주대학교)



◎ 분과세션 C. 원격강의 / 환경개선

■ 좌장 : 정주현(건양대학교 교육혁신원장)



■ 사례발표1. 김경선(포항공과대학교)



■ 사례발표2. 유직수(군산대학교)



■ 사례발표3. 임완철(경상국립대학교)



■ 사례발표4. 조영미(공주교육대학교)



■ 사례발표5. 양주성(한양대학교)



■ 사례발표6. 신희준(경운대학교)



◎ 분과세션 D. 학생·학습지원

■ 좌장 : 신성욱(부산가톨릭대학교 기획정보처장)



■ 사례발표1. 정순기(경북대학교)



■ 사례발표2. 조석철(서원대학교)



■ 사례발표3. 김세영(서강대학교)



■ 사례발표4. 이미라(조선대학교)



■ 사례발표5. 박진주(부산대학교)



■ 사례발표6. 두경희(호서대학교)



◎ 분과세션 E. 교육의 질관리

■ 좌장1 : 장길수(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장)



■ 좌장2 : 김덕파(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 부처장)



■ 사례발표1. 이정숙(광주대학교)



■ 사례발표2. 김미성(계명대학교)



■ 사례발표3. 김지영(경남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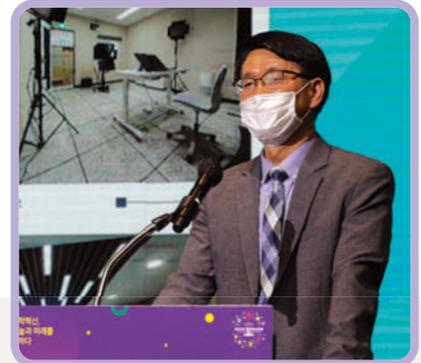
■ 사례발표4. 김평원(인천대학교)



■ 사례발표5. 박상훈(세명대학교)



■ 사례발표6. 차성현(전남대학교)



◎ 분과세션 F. 산학 / 지역사회 기여

■ 좌장 : 백성희(백석대학교 기획본부장)



■ 사례발표1. 유선진(창원대학교)



■ 사례발표2. 오용선(선문대학교)



■ 사례발표3. 하주현(건양대학교)



■ 사례발표4. 한승태(호원대학교)



■ 사례발표5. 봉상철(건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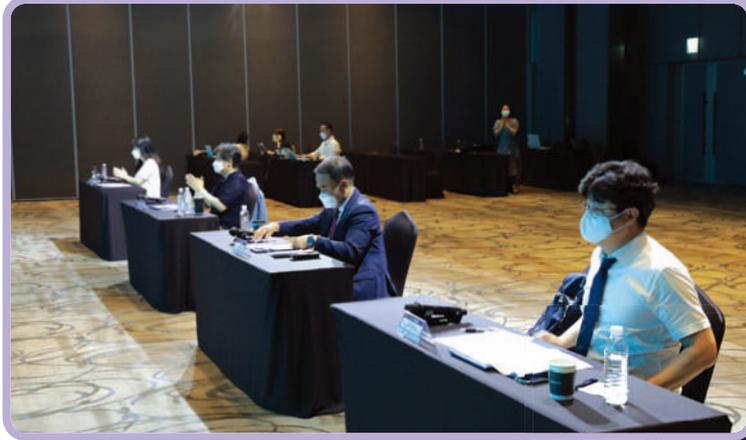


■ 사례발표6. 이지은(동명대학교)



◎ 학생참여 대학혁신 사례영상 경진대회

■ 심사위원 전체사진1



■ 심사위원 전체사진2



■ 덕성여자대학교 기획부처장 조연성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전문위원 이학수



◎ 학생참여 대학혁신 사례영상 경진대회

■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위원회 위원장 강현식(건양대학교)



■ 학생 심사위원 박수현(한양대학교)



■ 출전팀1 - 학생혁신기획단(가톨릭대학교)



■ 출전팀2 - 파이팅!(건국대학교)



◎ 학생참여 대학혁신 사례영상 경진대회

■ 출전팀3 - 김재홍(계명대학교)



■ 출전팀4 - 발전(광운대학교)



■ 출전팀5 - 럭키(삼육대학교)



■ 출전팀6 - 도토리박스(송실대학교)



◎ 학생참여 대학혁신 사례영상 경진대회

■ 출전팀7 - 게맛살(이화여자대학교)



■ 출전팀8 - S.N.S(차의과대학교)



■ 출전팀9 - UGRP(포항공과대학교)



■ 출전팀10 - THE NEW 프렌즈(한국산업기술대학교)



◎ 폐회식

■ 온라인 성과전시 이벤트 시상식1



■ 온라인 성과전시 이벤트 시상식2



■ 온라인 성과전시 이벤트 시상식3



■ 공식 홍보영상 공모전 시상식1



■ 공식 홍보영상 공모전 시상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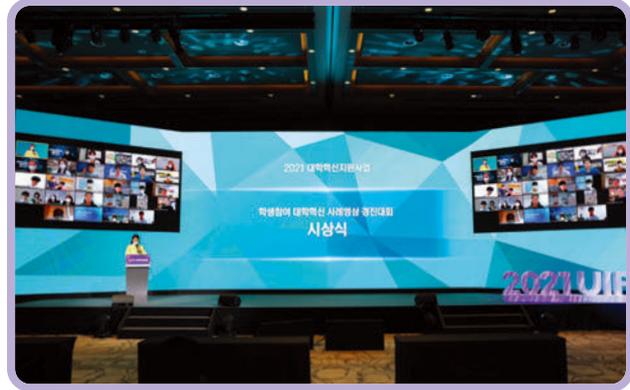


◎ 폐회식

■ 학생사례영상 경진대회 시상식2



■ 학생사례영상 경진대회 시상식1



■ 학생사례영상 경진대회 시상식3



■ 폐회사1



■ 폐회사2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제7호 게재 원고 모집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소식지 통권 제7호(9월호) 발간을 위한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콘텐츠

대분류	주제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사례	대학혁신지원사업 주요 성과사례
	COVID-19 환경 하의 대학교육혁신 사례
	기타(연구·교육·사회·공헌 분야의 대학 소식)
기고문	미래 고등교육혁신정책 어젠다(agenda)
	환경불확실성 시대(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의 대학교육 혁신전략
	국가발전(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역할
	기타(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 관련 주제)
행사소식	각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주요 행사
	기타 각 대학의 주요 행사 안내

원고응모대상

- 대학혁신지원사업 143개 회원교의 교원 및 직원, 학생
- 각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원 고 분 량

- 성과사례 및 행사 소식은 최대 A4 1페이지를 넘기지 않음
단, 기고문은 A4 2매 이내로 제한

행 정 사 항

1. 제출자료 : 원고 및 이미지 자료(원고 제출자의 사진 및 자료 사진 원본)
2. 제출기한 : 2021.8. 30.(월) 18:00까지
3. 제출방법 : 원고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4. 제 출 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사무국 (이메일 : uispc@pusan.ac.kr)
5. 유의사항 : 해당 원고 공모 및 협조 요청은 희망자(대학)에 한하며,
제출 원고가 많을 경우 주제에 따라 게재여부 및 순서 등 조정 가능
6. 문 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사무국 ☎051) 510-7905/7949

